東友會報

發行人 鄭在哲
印刷人 李揆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8568
交換 (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宜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會費안내

年會費	5천원
理事會費	5만원
常務理事會費	20만원
監事會費	50만원
會長團分擔金	1백만원
廣告料	별도청구

名簿작업 本軌道에…

11月末 발간목표로 總力경주

현재 3萬餘名 소재파악

「身上카드」 10月15日까지 接受

本會가 금년도 力點事業으로 추진하고 있는 「東國人名錄」 제5집 제작작업이 11月末 발간을 목표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문조직의 活性化와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76년에 이어 6년만에 발간하게 되는 새명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동문찾기운동」에 힘입어 많은 동문들의 주소가 속속 파악되고 있다.

9월20일 현재 약 3만여명에 대한 색인및 1차 원고를 작성하고있는 본회는 앞으로도 당초 목표인 원인 4만명의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원래 8월말까지 원고 마감키로 했던 것을 인쇄·교정작업에 들어가는10월15일까지로 재조정, 계속해서 「신상카드」를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동문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조속한 기일내에 송부 해줄것은 물론, 이미카드를 보낸 회원및 각급단위 지부라도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이를 즉각 수정할 수 있도록 연락을 바라고 있다.

본회에서는 「한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登載시킨다」는 원칙에 부응하도록 개인, 지역, 학과, 직능별동창회의 보다 활발한 「동문찾기운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人名錄 제작에 모든 동문들의 보다 더 열성적인 협조가 요청되고있다.

名簿편집委員會 구성

實務陣포함 7명任命

「東國人名錄」 제5집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가구성되었다.

실무책임자인 南基一본회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同위원회는 졸업년도별, 東友會員, 실무경험등을 고려,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금명간 첫회의를 갖게될 同위원회는 명부의 수록내용, 크기, 체제, 配列, 광고등 명부제작에 따른 제반문제를 결정하게된다.

◇東國人名錄5집 편집위원 명단

▲위원장=南基一(본회사무국장)

▲위원=李丙疇(51국문·모교 국문과교수) 李永子(63불교·모교여학생감) 尹天泳(65농학·前본회 사무국장) 李璜雨(67경행·모교警行科교수) 康鎭元(72경영·본회 사무차장) 申寬浩(73경제·본회사무국간사)

東國의 氣慨 世界를 잡다

◇자랑스러운 東國의건아 韓大化君

韓大化군 홈런殊勳

世界野球 한국우승의 主役

韓大化—日本을 끝내 울려버렸다. 그대신 삼천리 방방곡곡 온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트여주고 온통 웃음꽃과 환호로 들끓게 해준 장본인이다.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는 마치 우리의 韓大化(體敎4)를 위한 대회였다고나 할까. 대회 초반부터 높은 타율과 타점을 올리며 각광을 받기 시작한 韓선수는 9월14일 밤 거행된 對日本과의 마지막 결승전, 그것도 역전의 귀중한 찬스에서 3점 홈런으로 한바탕의 열전을 깨끗이 마무리지어 버렸다.

8회말 한방의 홈런—그것은 결코 기적이아닌 「용맹정진」하는 東國人의 저력을 그대로 과시한 힘찬 코끼리의 행진이었다.

『저를 키워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영광은 비단 저하나뿐이 아닌 전東國人의 우렁찬합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東國人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위해 부지런히 뛰겠읍니다.』

44년의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역사이래 최초로 한국에 우승을 안겨주고 또한 동양권에서의 정상정복이라는 大業을 이룩하는데 최고의 수훈을 세운 韓선수의 기개야말로 우리東國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청신호라 할것이다.

全南지부

月例모임등 활발

全南지부(회장=崔聖鎬) 8月任員會가 지난8월10일 동문 李政龍(和順新農中교장)동문을 有司로 光州시내 「예명」에서 열려 상부상조및 조직강화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8월26일 光州地法서 驪州支院長으로 영전한 尹汝達(68법학)동문 환송회를열어 光州在任中 同會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위로하기도했다.

在釜東國會

會運營전반 논의

在釜東國會(회장=邊永傑) 월례총회가 지난 8월30일 오후6시반 시내 「백만성」

司法考試 2次 7명合格

軍法務官試驗도 최종 2명

지난9월4일 발표된 司法考試제2차시험에 7명의 同門이, 또한 이에앞서 8월25일 발표된 제5회 軍法務官 3차최종시험에 2명의 同門이 각각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7월20일부터 23일까지시행된 司法考試2차시험은 母校在學生·동문등 1차합격자39명이 응시, 이중7명이 합격한 것으로 이들은 9월16·17양일간의 3차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여부는 9월25일 발표된다.

한편 軍法務官시험은 1차합격자 17명이 응시했으나 2·3차시험에서 2명만이 관문을 통과, 합격이 확정된 것이다.

◇司試2차합격자명단

▲姜昌元(76법학) ▲姜昶遠(77법학) ▲朴昇奎(77법학) ▲李洙哲(78법학) ▲丁滿鎭(78법학) ▲鄭永德(79법학) ▲金東雨(82법학)

◇軍法務官합격자

▲朴五淳(79법학) ▲李堯欽(行大院)

東綠會친선경기 1百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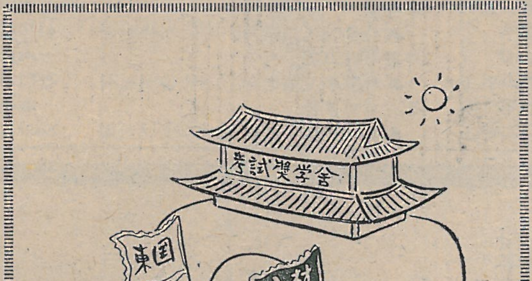
오는10月 성대한 自祝잔치 준비

중진동문들의 친선골프모임인 東綠會(회장=鄭在哲) 月例경기가 오는10월대회로 1백회를 돌파하게 된다.

이 1백회를 自祝하기위해 同會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있는데 1백회기념대회는 오는10월31일 정오 유성컨트리에서 열리게 된다.

골프경기를 통한 동문상호간의 친목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지난 69년5월25일 출범한 同會는 그동안 알차게 발전을 거듭, 지난 8월31일 현재 기금1억원을 돌파한바 있다. 同會는 초대부터 현재까지 鄭在哲회장이 이끌어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東友漫評 鄭雲耕


考試奬学舍
東国
人材搖籃

靑雲의 뜻, 여기서 펴자

嶺南지역 蹴球大會개최

동창회장 銀盃쟁탈

5개單位支部 참가

스포츠활동을 통해 東國人의 기상을 드높이고 嶺南지역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기위한 「제1회同窓會長銀盃쟁탈嶺南동문친선축구대회」가 오는 9월28~29일 양일간 경주대학 및 경주市立운동장에서 거행된다.

경주대학 白象體典의 일환으로 태동하게된 同大會는 동문과 재학생간, 동문과 동문간, 동문과 교직원간에 폭넓은 교류를 통해 東國發展에의 同參의 길을 트는데 의의를 두고 앞으로 매년개최하게 된다.

이번 제1회대회에는 釜山·大邱·慶州·浦項·蔚山동창회등 모두 5개팀이 참가, 풀리그전을 벌여 상위2팀이 우승다툼을 하게 되며, 우승 銀盃은 3연패팀이 영구 보존케된다.

同大會는 慶州동창회, 경주대학도호국단공동주관, 경주대학후원으로 되어있다.

金泉支會 세미나

奬學金 조성키로

金泉지회 夏季세미나가 지난8月18日 金珍圭(경남대교수)회장을 연사로 「東國人의 사명」이란 주제아래 충북永同 般若寺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뒤회원들은 5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결의하는등 同會발전대책등을 논의했다.

成正基동문 優勝

東綠會 9月경기서

東綠會 9월 월례경기(제99차)가 지난9월15일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金聖涉 金準鏞동문을 스폰서로 태능컨트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백회가될 오는10월경기를 성대히 치를것등을 결의한다음 경기에 들어가 우승에 成正基, 준우승 金在泓 3등 睦鎭夏, 메달리스트 禹鍾植, 행운상에 金鍾洙동문이 각각차지했다.

공인會計士 1차 8名

최근不振 점차 벗어나

모교는 금년도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8명이 합격했다.

지난 8월6일 실시된 1차시험에는 총4천1백90명이 응시, 2백90명만이 합격했다.

1차시험 합격자들은 오는 10月9日 2차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리게되는데 1차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金明中(대학원·회계1) ▲尹元秀(경영4) ▲丁大鎭(회계4) ▲李錫權(회계4) ▲金鎭弘(회계4) ▲張賢基(경영3) ▲李泰鍾(경영3) ▲李昌熙(경제2)

제15회 東國山岳祭 日程확정

10月16·17日, 설악산 12탕골서

제15회동국산악제가 오는 10월16~17일양일간에 걸쳐 內雪嶽 12탕골에서 열린다.

東國山岳會(회장=崔榮植)가 연례행사로 개최해오고 있는 이산악제는 산악인들의무사고등반을 기원하기위한 것으로 참가범위는 산악회원·동문·교직원등이 되고있다.

이와 관련 동국산악회는 지난9월18일 오후 을지3가 상지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는데 출발일시및 장소는 오는10월16일 오후2시 모교본관 앞이다.

全東國人과 가족에게 30%할인!
최신의료시설·정예의료진·최선의 시술
동국병원
서울·도봉구 수유동 45~5
전화(981)4883~4、8817~8

1급자동차 정비공장 견인차 주야대기
吾星工業社
영등포 문래동 정비단지 635-3651~3

결속東國의 礎石

――正確한 명부위해 적극 同參바라

동우提言

東國의 뿌리찾는 事業임을 자부

南基一
<본회 사무국장>

지금 本會사무국에서는 東國人名錄작업이 한창이다。8월부터 착수、활발한 진행을 보이고있는 이作業이 11월末로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6만東國人의 현황이 集大成되는 것이다。

지난76년에 발간된 기존 人名錄은 변동사항과 미비된 부분이있어 다소 만족치못하던 차에 계속적으로 추진、확연한 성과를 얻고있는「동문찾기운동」의 결실에 힘입어 미비된 사항의 보완을 중점으로 삼고있다는 점이 이번 人名錄작업의 근본목표이며 장점이다。

東國을 거쳐간 東國人들이 6만을 넘고있는 이 시점에 정확하고 내실을 기한 명부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온바、「동문찾기운동」、경향각지에 산재해있는 동문들의 성원、해외동문들의 남다른 관심에 부응할 人名錄의 發刊이 目前에 다가왔다는것은 여러 의미에서 의의가깊다。

한편 人名錄의 재발간에 즈음하여 회보를 통해 광고를 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東國精神의 전재함을 일깨워 준일은 경향각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점이다。惠專을 졸업、노년에 접어든 某동문은 부부동반으로 本會사무국을 방문、현주소를 알렸는가하면 뉴욕이나 카나다 동지에 지부를 결성하고 있는 동문들도 人名錄 기재에 하자없는완벽한 동문들의 현황과 격려 書翰을 보내기도 해 이번 인명록 발간은 일부동문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全東國人들의기대임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비추어 볼때 이번 작업은 단순한 본회 사업의 일환으로만이 아닌 東國人의「뿌리」를 찾는 사업으로 자부할수 있는 것이다。

새 人名錄이 완성되면 파급효과는 남다를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정확한 현주소와 졸업년도를 토대로 同門들 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고、단위별이나 本會 전체적인 사업을 펼칠 때도 중요한 활성매체가될 것으로 믿는다。

76개星霜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모교발전의 청사진은 우리 동문들의 熱과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을 이번 人名錄 작업을 계기로 실감한다。「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영구불변하다」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모교에대한 소속감및 일치감은 단합된 東國人의 의지의 발현에 초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체감을 발판으로 東國人들의 힘이 집약될때 모교발전에 끼칠영향력은 실로 지대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발전은 대학 자력을통해 이루어질 성질에서 점차로 변모하는것같다。한정된 대학의 의적규모、재단 기여도등에서 유추될 발전의 폭은 그리 큰것이 아닐것이다。보다 중요한것은 모교발전에 뜻있는 동문들이 단결된 힘을기초로 모교발전에 직결되는 동창회사업에 후원을 아끼지않아야 할것이다。

本會에서 추진할 과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다。우선적으로 시급한 6만東國人들의 상징이며 동창회 사업의 구심점이될 총동창회 專用建物의 건립은 물론、동창회 장학금의 확대、긴밀한 협조체제의 확립등이 그것이다。

東國人名錄 발간에 즈음하여 다시금 절실한것이 同門들의 단결된 성원임을 느꼈고、반면 이 작업을통해 확실한 것이 단결東國人의 저력을 가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 입에서 입으로、뜻에서 뜻으로 연결되어지는 힘의 총체가 현실로 드러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견실히 발을 내딛고 있는 본회의 사업에 더욱 애정어린 동문들의 성원이 답지할 것을 기대하며 전동국인들이 바램에 부응할 알찬 東國人名錄의 발간을 기원한다。

□大韓住宅公社

▲양유빈 （62경제） ＝업무부 부금과장
▲박창봉 （68법학） ＝총무부교수
▲김생옥 （69상학） ＝총무부 인사과장
▲박정남 （70상학） ＝기획실 제도관리과장
▲이박원 （71경영） ＝충청지사서무과장
▲신승의 （71경영） ＝업무부 업무계장
▲정현종 （71경제） ＝경리부 자금운영계장
▲김홍연（77경제）＝경북지사계장
▲이춘근 （상학） ＝업무부 업무계장

□農漁村開發公社

▲李周烱 （65 經濟） ＝과장
▲河昌正 （72 英文） ＝〃
▲趙奎植 （73 食工） ＝대리
▲孫明浩 （73 〃） ＝〃
▲鄭秀先 （73 農學） ＝社員
▲黃晟夏 （74 農經） ＝〃

□農業振興公社

▲河權湜 （57 법학） ＝檢查室長
▲趙承哲 （59농학） ＝農業部과장
▲鄭道植 （60 법학） ＝檢查室
▲朴彰載 （ ） ＝충남支社
▲丁奎鳳 （62경제） ＝해외부
▲曺洙萬 （62법학） ＝홍보실
▲申晶雨（64행정）＝삽교천사업소
▲宋圭平 （65농학） ＝확대부
▲孫世英＝（66정외）＝창녕사업소
▲李權默 （66농학） ＝확대부
▲金三喆 （67농학） ＝시험소
▲朴裕在 （68농학） ＝농업부
▲黃항九 （69농학） ＝확대부
▲鄭漢杓 （71농경） ＝농업부
▲薛範洙（72도공）＝낙동강사업소
▲南相郁 （74토목） ＝설계 2 부
▲金寬中 （75토목） ＝〃 〃
▲金學求 （76토목） ＝설계 2 부
▲朱泳俊 （77행정） ＝해외부
▲黃元德 （78법학） ＝총무부
▲吳昇和（78토목）＝삽교천사업소
▲申大徹 （79경제） ＝총무부
▲金龍燮（79토목）＝미호천사업소
▲이호영＝경기지부
▲이을범＝삽교천사업소
▲김영상＝〃
▲김옥진＝낙동강사업소
▲朴相權 （81물리） ＝홍보실
▲최현철 （81토목） ＝설계 1 부

□成業公社

▲韓相榮 （62정치） ＝차장
▲洪慶杓 （62법학） ＝과장
▲姜眞照 （65경영） ＝차장
▲閔文植 （ ） ＝과장
▲金容勳 （78경영） ＝사원
▲裵泰薰 （80법학） ＝〃
▲李仁守 （81경제） ＝〃

□전기통신공사

▲박영환 （49국문） ＝서울시외전화국장
▲한총라 （49사학） ＝전기통신공사연수원교관
▲이칭수 （54경제） ＝중앙건설사무소가격부장
▲조종근 （55법학） ＝천호전신전화국업무과장
▲이대호 （61法學） ＝미아전신전화국 업무과장
▲안종열 （63法學） ＝인천전신전화국장
▲이영순 （63商學） ＝중앙건설사무소 외자 3 과장
▲배완기 （63法學） ＝중앙건설사무소 운송과장
▲전영구 （64法學） ＝총무부복지과
▲양권식 （65經營） ＝보전국시외선로과장
▲유원우 （70商學） ＝재무국채권관리과
▲송용석 （60法學） ＝서울지사물자관리과

□서울시地下鐵公社

▲成先語 （60國文） ＝계장
▲張榮錫 （61經濟） ＝과장
▲權功殷 （65經營） ＝계장
▲朴用誠 （68法學） ＝〃
▲薛範洙 （73土木） ＝〃
▲朴商珍 （77行院） ＝과장

□山林組合中央會

▲金樹完 （57林學） ＝지도부장
▲車榮福 （61經濟） ＝林產部次長
▲河上鎬 （61林學） ＝指導部次長
▲金鍾鎬 （70林學） ＝指導部
▲尹康燮 （72農經） ＝營林部

□國土開發研究院

▲吳鎭模 （61法學） ＝資料室長·首席研究員
▲方秉武 （69警行） ＝企劃課長
▲洪誠杓 （71都工） ＝主任 研究員（海外파견）
▲朴男濬 （75國文） ＝研究員
▲徐泰晟 （79造景） ＝〃
▲崔成玉 （82電算） ＝〃

□證券監督院

▲柳亨烈 （68經濟） ＝검사 1 부 檢查役
▲申在永 （71 〃） ＝총무부代理
▲孫重섭 （74 〃） 안전관리실調查役
▲金宗哲 （78經營） ＝기획부事務員
▲柳泰植 （81經濟） ＝조사부事務員

□韓國證券去來所

▲鄭吉雄 （68경영） ＝총무과장
▲梁世烈 （69경제） ＝상장부차장
▲朴元植 （74사학） ＝시장 3 과장
▲朴俊緖 （76경영） ＝시장부대리
▲車元轍 （76경제） ＝시장부 채권과 대리
▲金善基 （78경제） ＝상장부주무
▲閔承轍 （79법학） ＝조사부주무

□美隆建設

▲金鎭元 （65경영） ＝차장
▲鄭求昌 （72경제） ＝과장
▲金明洙 （72경영） ＝〃
▲曺明煥 （72建築） ＝대리
▲金英洙 （75土木） ＝대리
▲金顯龍 （77 〃） ＝〃
▲金德榮 （77建築） ＝〃
▲曺聖鉉 （79土木） ＝〃

□漢陽工營

▲鄭根培 （73建築） ＝대리
▲李華永 （73行政） ＝과장
▲李龍鳳 （77電子） ＝대리
▲孫琴植 （82工經） ＝생산관리과

□大宇造船

▲兪鎭燦 （62政治） ＝총무부
▲李榮成 （74法學） ＝〃
▲이정학 （74建築） ＝건축부
▲강철수 （75史學） ＝인사부
▲李商翼 （77土木） ＝토목부
▲李明承 （74經營） ＝전산운영부
▲예종태 （77經濟） ＝인사부
▲배수진 （77法學） ＝공단사업부
▲이춘구 （78哲學） ＝총무부
▲김중호 （79電氣） ＝품질관리부
▲박진진 （79政外） ＝종합기획실
▲이남기 （82警行） ＝외자구매부

任員 選任公告

本 行政大學院同窓會회칙 제9조및 제15조에 의거 1982―3년도任員을다음과같이 選任하였기에 이를 公告합니다

다 음

명예회장 安鍾烈（1회·한국전기안전공사理事長）
회 장 孟殷在（10회·國會議員）
부 회 장 石明洙（6회·반도팬션영등포지점代表）
馬國一（10회·한국보험공사연수원장）
朴桂山（10회·女·계산산업社長）
李英九（12회·태양관광社長）
金洛天（14회·도서출판 고려원社長）
감 사 金照明（7회·인창한의원 부사장）
李正寶（11회·동화진흥상사代表）
이 사
〈1회〉 趙誠琳 李 俊 尹鎰均 金振鶴 許東華 鄭用吉 朴商春
〈2회〉 申日洙 劉基天 沈燦燮 金璨會 李璜雨
〈3회〉 朴南圭 姜大彦 閔庚仁 柳英樹 趙誠雲 金龍守
〈4회〉 柳秀明 吳亨淳 高世煥 金忠南 吉 堉 延秉鐸 金永復 朴敬熙
〈5회〉 朴瑾浩 金鐵龍 許萬位 安채蘭(女) 卞訓吉 金昌煥 黃慶石 李榮一 印丁一(女) 金廣澤
〈6회〉 金琮載 金容世 孫根浩 孫慶秀 盧炳春 鄭泰洙
〈7회〉 玄海天 尹蓮相(女) 鄭煥旻 高順福 裵大起 金武昌 尹建秀 徐正乭 金炳始
〈8회〉 柳浩龍 尹福源 李秀澤 南雄鍾 姜永福 李成俊 文承德 金華澤 吳相洛
〈9회〉 李喜範 張纘周 徐海普 田英玉(女) 趙賢行 辛鶴俊 鄭炳奇 姜在豊 韓昌榮 邊聖根 梁奉圭 金榮柱
〈10회〉 申忠均 李瑞行 梁昶植 卞仁化
〈11회〉 趙源煥 吳仁均 李俊邦 韓基詳 李聖柱 鄭信行 咸智欺 金學武 方朝圓 金明玉
〈12회〉 金兄鎭 金星台 李允心(女) 李一成 李宗默 李應湖 李範俊 崔秉晉 張熙奎 許地會 金錫煥
〈13회〉 朴勝烈 洪陽熹 金思鴻 宋文權 李起健 李春基 李京洙
〈14회〉 金斗龍 魚性浩 金富彦 洪承權 玄貞涉 (女) 朴鍾浩 金鍾午 金澈運 金尙勳 閔鳳植 方鎬錫 崔禮燮 姜春浩 梁承權 金永會 李相沐 李전鎬
〈15회〉 徐大石 權五周 金弼洙 閔設子(女) 安秉浩 金採成 成烈洪 尹瑄洙 韓泰錫 鄭相睦 金點判 許光一
사무국장 玄海天（7회·성우기업代表）
※理事명단중 고딕활자체는 各期別간사 겸임표시임。

1982年 8月 日

東國大學校行政大學院同窓會
會長 孟 殷 在

각급單位 代表者회의 개최

본회 活性化 폭넓게 논의

오는28日、모교 教授세미나실서

본회는 오는9월28일(화) 오후6시30분 모교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각급單位東友會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는 동창회 活性化와 母校발전에 대한 동창회 활동등 제반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금년도 主要事業 公知및 추진현황 소개와 東國人名錄 발간에 따른 각급단위동우회의 협조사항등을 시달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또 본회 당면사업인 각급任員 경주대학 방문、제5회 동창회장배쟁탈테니스대회、각급단위별 동창회의 정기적 모임및 회비정착화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이날 모임에는 지역을 제외한 本會산하 직장·학과·직장별單位조직 대표가 참가하게 된다。

法雄臺

26日 모교서定總

法雄臺(명예회장申相斗)정기총회가 9月26日 오전11시 모교 다향관에서 열린다。

同모임은 졸업생및 재학생후배가 한자리에모여 선후배간의 우정을나누고 考試합격에의 결의를 다지는 유익한대화자리가되고있다。

禮山지회任員개편

회장에朴勝視동문

禮山郡동우회(회장=朴魯成)임원진이 개편되었다。

새임원으로는 회장에 朴勝視(62경제·예산성공회神父)、부회장에 李麒洙(60경제·예산군농촌지도소담당관) 총무에 尹春錫(예산고학생과장)동문이 각각선임되어 활약하고 있다。

회원은 약20여명이 파악되고있다。

각종會費 定着化 추진

前年비해 동문協助 높아져

각종會費납부제의 정착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는 本會에서는 전체동문이 가능한限 빠른 시일내에 각종회비를 납부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금년을「동창회 기금확보의 해」로 설정한 본회로서는 지난 상반기동안 임원방문、아르바이트학생 활용등을 통해 회비수입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목표액에는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본회의 적은人力으로 일일이 동문들을 방문할수없는 점을 감안、지부·지회별로 단체회비 조기납부가 절실히 요망되고있다。

지난 상반기동안 본회에 접수된 각종 회비실적을 보면 年會費가 목표액 1천만원에 5백79만원이며、前年 총액 2백27만6천9백92원의 2배를 상회했다。

또 理事會費는 목표액 1천2백만원에 3백24만원으로 前年총액 3백57만원을 상반기중에 육박하고 있다。

상무이사회비는 목표액 1천만원에 2백75만원으로서 前年총액 5백만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廣告料는 12만원으로 전년 1백4만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현재 모든 동문이 1년에 5천원씩의 年會費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년회비 10년분에 해당하는 영구회비 5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종신토록 年會費가 면제되고 있다。

임원급은 회장단1백만원 상무理事 20만원、이사 5만원씩의 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각종회비는 후배장학사업을 비롯、東友會報발행、동창회관건립을위한 기금적립금등으로 쓰이게된다。

考試獎學舍 건립안 確定

룸비니동산에 세우기로

3백여평 4층規模

지난 7월 朴桂山동문이 건립비를 희사키로했던 각종 고시및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考試班장학사-「桂山獎學舍」(가칭)가 일부계획을 수정、확정함으로써 착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지난 9월1일 열린 모교의 제9차「건설조경자문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건립위치를 약간 변경、당초「桂山館」옆에 나란히 세우기로 했던것을「桂山館」맞은편에 있는「룸비니 동산」에 건립함으로써 두건물이 서로 마주보도록 한다는 것과、규모도 종전의 地下1층、지상2층에 연건평 2백여평이던 것을 지하1층·지상3층으로 1층을 증축、연건평 2백98평으로 확장건립한다는것등이다。

따라서 건물의 내부시설도 지하1층은 보일러실、지상1층은 2인1실의 宿室9개와 사감실·식당및주방·어학실습실이 들어서게 되며、2층은 宿室11개와전용열람실·어학실습실이、또한 3층에는 다용도휴게실과 사무실등이 자리잡게된다。

한편 同건물은 문교부·건설부의 허가를 받는대로 곧 착공하게되는데、현재 설단계에 있다。

朴桂山 동문

財團서 감사패받아

◇朴 동문

학교법인 東國學院(이사장=朴淇宗)에서는 지난9월1일 오전 朴桂山(77행원·桂山산업社長)동문에게 桂山館을 건립、기증한 공로를 기려 감사패를 전달했다。

朴동문은 지난 80년 후배들의 복지향상을위해 대지1백10평에 地下1·地上2층의 아담한 여학생 전용관 桂山館을 지어 모교측에 기증한바 있다。

釜山支部 이사회

組織强化등 內實결의

釜山支部(회장=金容彩)이사회가 지난 8월28일오후6시반 동양관광호텔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다。

임원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在釜동국인의 단결아래 東國人의 긍지를 드높이고 모교와 동창회발전에 적극 동참해나가자』고 결의한 다음、년회비단체납부및 東國人名錄제작용 주소록 통보등 본부동창회와의 유대긴밀도 꾀하기로 했다。

野球部후원회

轉地訓鍊費보조

지난 9월15일 열린 野球部後援會이사회는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역전홈런을날려 한국우승의견인차역할을한 韓大化(體敎4)군에게 純金10돈짜리기념품을 제작、격려키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9월1일 열린 同이사회는 하계전지훈련비 2백50만원지급을 추인했으며、우수선수스카웃에 따른 1명분의 경비를 同후원회에서 맡기로 결의했다。

본회 奬學金지급

2學期分 4명에게

본회가 우수한 후배육성의 일환으로 매학기 지급해오고 있는「同窓會 奬學金」제2학기분 전달식이 지난8월31일 본회사무국에서 있었다。

이날 南基一사무국장은李元燮군등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이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학교생활에 충실하는 모범후배가 되어달란」고 당부했다。

◇등록금 전액지급=李元燮(국문4)

◇수업료반액지급=李鍾雲(연영3)金元澤(행정3)具慶淑(가정3)

經營科장학금

3명에게 45만원

經營學科동창회(회장=李昌圭)장학금전달식이 지난9월17일 정오 모교경상대학장실에서 있었다。

후배들의 勉學장려를 위해 매학기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同會는 이날今學期分으로 박경택(4년)장광수(3년)장홍식(2년)군등 3명에게 총45만원을 李昌圭회장이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전달식에는 모교韓炫경상대학장과 경영과 소속 李順龍 黃昌圭 金相鍾교수 同科동창회 鄭虎雄부회장 南基一 金德洙 康鎭元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는데 전달식이 끝난뒤 다향관에서 오찬을 나누며 同科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農學科 후배장학금 60만원 지급

農學科동창회(회장=柳周馨)는 지난9月3日正午 모교農科大學長室에서 이은상(농3) 박헌규(농2)군등 재학생 2명에게 각각30만원씩 총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同會가 지난해부터 奬學基金을 募金、이번 학기에 첫지급한 이장학금은 앞으로 매학기 基金利子로 계속되는데 이날 전달식에는 모교 金興培농과대학장、同會 金洪哲부회장(모교 교수)과 李炳天간사장(모교 대학원주임)등이 참석했다。

唐津郡월례회

李鶴容총무宅서

당진군지회(회장=南常祐)9월월례회가 지난9월18일 오후 이학용 총무댁에서 열렸다。

李동문의 자택이사 축하를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지회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대화로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했다。

會長銀盃 테니스大會열어

9月26日(日)모교코트서

제5회 본회회장銀盃쟁탈테니스대회가 오는9월26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교테니스코트(舊숭정전자리)에서東國테니스회주관으로열린다。참가대상은 동문교직원으로 A·B·C3개조(복식)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희망자는 1인당 참가비5천원을 지참、오는9월24일까지 본회사무국에신청하면 된다。

朴武·禹和亨동문

金泉지회서공로패

김천지부는 지난8월28일 연곡국교장을 마지막으로정년퇴임식을가진 동회 前부회장 朴武(53법학)동문에게 공로패를전달、위로했다。

한편 동회는 지난8월1일 김천검찰지청사무과장에서 서울남부지청 사건과장으로 영전한 禹和亨(59법학)동문에게도 김천동우회발전에 기여한공로를기려감사패를 전달했다。

6백45만원 募金

政外科 奬學基金 계속답지

鄭在哲회장 50만원

政治外交學科장학기금 모금운동이 계속 活氣를 띠고 있다。지난 7월7일 奬學基金 협찬자 1차모임을 가져 基金增大를 결의한 同科는 8월말현재 6백45만원을 모금했다。

금명간 同科동창회 임원진을 구성、이 모금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시킬 同科의 장학기금 총목표액은 3천만원이며、年內목표는 1천만원이 되고 있다。

한편 장학기금 협찬연락처는 모교 政外科 兪光震(64정외)교수연구실(모교 구내 294)이다。

◇奬學金납부자 명단(2차분)

▲鄭在哲(52년졸·國會예결위원장)=50만원

▲朴萬甲(67년졸·건설공제조합 강남지부차장)=10만원

▲朴正永(67년졸·민정당 의원부장)=〃

▲鄭允武(58大院졸·모교행정대학원장)=〃

▲李興南(63년졸·三一電機공업사장)=30만원

▲朴翊柱(61년졸·국회의원)=20만원

▲韓相根(60년졸·천일제약사장)=50만원

▲權允赫(모교政外科 교수)=10만원

▲禹順伊(60년졸·대영실업사장)=10만원

▲孟殷在(61년졸·국회의원)=20만원

▲金鍾浩(63년졸·삼륙기업사장)=30만원

行政科 基金모금

科동창회 活性化일환

申允杓동문50만원

行政學科의 團結된 힘을 과시하고 科동창회 活性化를 도모키위한 행정학과장학기금조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9월15일현재 총2백38만원이 모금되었다。

학과설립 23년동안 배출된 각계각층의 동문들에게 모교애를 불러일으키고、재학생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이 기금조성운동은 총2천만원을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行政學科재직교수및 뜻있는 동문들이 앞장서서 벌이고있는 이 운동은 2회졸업생 申允杓동문의 50만원을 비롯하여、이미 지난 5월20일 제2회「行政學徒의 밤」에서 2백여만원을 모금했다。

同科는 앞으로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연내에목표액의 절반인 1천만원을 모금할 계획인데 모금방법은 개인 또는 기별·직장별로 하게되며 납입처는모교 鄭允武행정대학원장실、또는 행정학과 鄭基燮교수연구실이다。

同科장학기금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鄭允武(행정대학원장)=20만원

▲金翰周(교원공제회이사장)=〃

▲閔丙天(법정대학장)=10만원

▲鄭用吉(대학원학감)=〃

▲申宗淳(행정과교수)=〃

▲崔요煥(〃)=〃

▲鄭基燮(〃)=〃

▲金繁雄(〃)=〃

▲朴瑾浩(행정대학원 학감)=20만원

▲柳豊雲(모교총무과 주임)=10만원

▲姜馨允(경주대교수)=〃

▲申允杓(숭전대법경대학장)=50만원

▲柳茂吉(71행정)=10만원

▲李鍾錫(모교교무과 주임)=5만원

▲柳浩龍(대신대학교수)=〃

▲申方休(서울신문사)=〃

▲金令才(67행정)=〃

▲李先鎬(69상학)=〃

▲李長春(75사학)=〃

▲羅仁洙(한국투자신탁)=3만원

▲金奉永(공무원연금관리공단)=〃

▲張在喜(77행정)=1만원

▲崔炎鎬(81행정)=〃

惠門會

임시總會열어

惠門會(회장=朴養源)정례모임이 지난9月18日 오후3시 市內중학동 청기와집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初老의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서로의 近況을 나누었으며 이자리에서는 특히 同會 金定基(국방부)간사장이 자신이 최근펴낸「젊은날의 幻想」과 타올을 증정、박수를받기도 했다。

鄭埰鎮 경북知事

慶州大에 造景樹 5백그루

慶州大學은 鄭埰鎮 경북지사로부터 조경수 약5백그루를 기증받았다。

鄭지사가 특별히 배려한 이 캠퍼스 조경사업을 위해 나무들은 잣나무 2백50주、은행나무 1백주등 총5백여 그루로 오는 10월25일부터 11월25일까지 경북임업시험장에서 慶州大로 이식될 예정이다。

忠南道展大賞

목우회美展에서도

母校 교육대학원 莊永柱(미술전공)군과 李在晧(〃)군이 문공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후원하는 프랑스 르·살롱 출품작선정「목우회 공모 미술전」과「忠南道展」에서 각각 大賞을 차지했다。

카나다支部 任員개선

團體會費 5백弗 송금해와

在카나다동문회는 지난3월27일 제5차 연례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50여명의 회원이 이역만리에서 東友愛를 나누며 東國人의 긍지를 키우고 있는 同會는 모교농구부후원기금、年會費단체납부、조직확대등에 솔선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同會는 지난7월 금년도 회비로 5백불을 송금해오기도 했으며、82~83년도 사업계획으로 카나다內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의사를 타진해왔다。

카나다內 어느 다른大學동창회보다도 뜨겁고진한友愛를 나누고있는 同會는앞으로 카나다를 방문하게될 東國人의 지리안내및 환영회를 수시로 열겠다는등 의욕이넘쳐나고 있기도하다。

한편 同會는 각종 모임時마다 校歌를 부르면서 모교를 그리워 한다고 전해왔는데 본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지난 8월하순 교기1점을 보내 東友愛를 더욱 돈독히하는 계기가되도록격려했다。

在카나다동문회 82년도 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고문=千允基(50경제·유임)

▲회장=鄭觀豊(60철학)

▲부회장=吳昌燮(60경제)朴昌淑(74과교)

▲총무=金國助(63경제)

▲섭외=金圭哲(70정외)

▲문화=李汀九(76국문)

◇千允基고문

◇鄭觀豊회장

◇吳부회장

◇朴부회장

◇金國助총무

◇金圭哲섭외

◇李汀九문화

同門동정

濠洲등 3개국 방문마쳐

▲金殷夏(52정치·국회부의장)‖국회外務위원회 해외시찰단장으로 지난 8월27일부터 약20여일동안 濠洲, 뉴질랜드, 피지를 공식방문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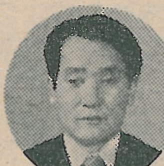
韓·濠의원친선협회 한국측 회장을 맡고있는 金동문은 방문3개국 首相, 上下院의장등 정부및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뒤 교민사회도 살펴보았다。

서울赤十字社 사무국장에

▲吳鳳烈(48전문)‖서울赤十字社사무국장에 부임했다。

지난봄 仁川직할시적십자支社 사무국장으로 전근되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吳동문은 대한적십자사 기획실장등으로 적십자 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오고있다。

혁성運輸 사장에 취임



▲李殷[illegible](52경제)‖지난 8월 혁성운수(주) 사장에 취임。 同社는「서울市民의 발」역할을 하고있는 시내버스업체로 1백여대의 버스를 보유, 하고있다。

李동문은 茂榮産業사장, 東南슈퍼체인社長, (주)樂喜합공사장등 오래전부터 기업경영에 손대오고있다。

東山油脂 회장 추대받아

▲梁世煥(53법학)‖東山油脂(주) 회장에 추대되었다。 앞으로 同社의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될 梁동문은 서울信託銀行 상무등을 역임한 중진 뱅커출신。

중소기업에서 활약하다가 68년 주택은행비서실차장으로 금융계에 들어온 梁동문은 70년 서울신탁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同이사·상무이사를 역임, 최근 임원직에서 물러났었다。

한국投資信託 監事유임

▲李羲邦(55법학)‖지난 8月 한국투자신탁(주) 株主총회에서 同社監事에 유임。

재무부 재직시 投信설립사무국차장을 지낸 인연으로 한국投信에 들어온 李동문은 총무·재형·관리·기획조사부장 및 동부지점장을 거쳐 지난 80년 상임監事에 부임한 바 있다。

大田원호지청장에 부임

▲李相律(57법학)‖大田원호지청장으로 발령되었다。

李동문은 원호처 晋州지청장, 光州지청장, 원호국장등을 역임하면서 원호대상자의 후생복지등에 앞장서오고 있었다。

關稅士 자격증을 획득

▲崔熙天(51정치)‖지난8월2일 관세사자격을 얻었다。

각종輸出入통관절차대행이 主業·인 관세사는 자격증소지자가 4백2명, 개업중인 사람이 2백40여명에 이르고 있다。

李동문은 지난 54년 부산세관에 첫발을 딛어 인천·서울세관등서 27년간을 봉직하고 정년퇴임한바 있다。

「한국政治文化敎育硏」회장에

▲金完基(75경원)‖사단법인韓國政治文化敎育硏究會 제2대 회장에 취임。

우리나라 정치·경제·문화·교육문제에관한 연구를통해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同會는「汎國民必讀독서운동」등의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9월18일 취임식을 가진 金동문은 지난 77년부터 경영대학원동창회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尙志大교수 한국산업경영연구소장등을 역임했다。

◇서울특별市

▲姜炳壽(57정치)‖환경녹지국장에서 公務員敎育院長으로 轉任。 57년 國務員사무국을 스타트로 公職에 몸담아온 姜동문은 62年 서울市로 옮겨 성북·관악·영등포구청장과 새마을담당관, 공원녹지국장등을 역임했다。

▲兪永植(61법학)‖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에서 東大門區廳도시정비국장으로 轉任。 서울市 內務局市政課, 水道局경리과를 거쳐 기획관리관실法務課에서 오랫동안 奉職해왔으며, 지난 78년엔 대통령勤政褒章을 받았다。

▲金榮俊(58경제)‖마포구 총무국장으로 轉任。 金동문은 監査課2계장, 마포구 민방위국장등 서울市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고있다。

◇한국商業銀行

▲許文秀(57·경제)‖서울驛前지점장에서 南大門支店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商銀東友會長을 맡고있기도한 許동문은 서교동·신길동·光州·청계지점장등을 차례로 역임한바있다。

▲朴煥盛(65경제)‖청계지점 次長으로。 朴동문은 심사2부를 거쳐 동대문지점 차장으로 재직해왔었다。

▲金榮洙(70정치)‖국제부에서 런던지점으로。

調達廳 外資4과장 轉任

▲曺智煥(58경제)‖調達廳 外資4課長으로 轉任。

지난 60년 조달청에 들어가 20여년째 봉직해오고 있는 曺동문은 內外資구매및 企劃업무에 밝으며 駐日대사관 구매관등을 역임했다。

曹溪寺 주지에 被任

▲朴宗觀(80행원)‖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麻谷寺주지에서 지난 8월30일자로 조계사주지(직무대행)에 被任되었다。

朴동문은 조계종총무원 사회·교무·규정국장등을 지낸 教界 중진스님으로 63년사미계, 70년비구계를 수지했다。

PD서 映畵감독으로 轉身

▲金在衡(61국문)‖최근 영화감독으로 데뷔。 TV드라머의간판PD로 지난 4월 방송국을 떠난지 두달만에첫작품「椿姬」를 크랭크업한 金동문은『TV에서의 연출경험을 살려 좋은 작품으로 동문및 각계각층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62년「국토만리」(KTV史劇)로 TV연출을시작한 金동문은 TBC에서 KBS 2TV시절까지 20여년간을 드라마연출에 전념해왔으며,「달동네」등 日日연속극만 3천5백회를 기록한 TV연출계의 산역사로 꼽히고 있다。

進興요업(주)工場長 승진

▲金泰祐(63화학)‖進興企業계열인 진흥요업(주) 理事 공장장으로 승진。

지난74년 관리부장으로 入社, 관리업무에만 8년여를 봉직해오다 임원승진한 金동문은『6백여근로자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國內시장은 물론 海外市場에서도 好評받는 제품생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일및 도자기제조업체인 同社는 年間수출목표가 6백만弗이며 특히 현재 신축중인 모교 강의동 외장타일을 생산, 납품하기도했다。

夫婦동문이기도한 金동문은 모교 英文科강사로 있는 姜允子(64영문) 동문과의 사이에 1男1女를 두고있다。

延世大서 法博학위 취득

▲李東科(64법학)‖지난 8월27일 연세대후기졸업식에서 法學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제목은「英法上의 法의지배에 관한 연구」。

지난67년 모교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마친 李동문은 원주대학을 거쳐 현재 청주사범대학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崇田大 法經大學長 부임

▲申允杓(65행정)‖숭전대法經大學長에 부임했다。

同지역개발대학원장을 역임한바 있는 申동문은 10여년간을 中央公務員교육원교수로 활약했으며 지난 81년3월 崇田大교수에 부임했다。

행정고시위원, 총리실자문위원등을 지내기도한 申동문은「新行政學」「새마을운동理論」「地域開發論」등의 저서가 있으며, 忠南동창회 임원으로도 활약이 크다。

三省出版社 사장 昇進

▲金宗圭(64경제)‖三省出版社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同社부사장을 맡아오다 社長으로 승진한 金동문은『꾸준히 良書를보급, 올바른 국민정신함양에 기여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 바랍니다。

釜山地檢 총무부장 榮轉

▲申相斗(64법학)‖춘천지검에서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부산 원주 성북 성동지청등을 거친 申동문은 부산지검에는 2번째 부임이 되고있다。

議政府支廳 검사轉任

▲金熙玉(70법학)‖의정부검찰지청 검사로 전입 되었다。 지난 76년 제1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金동문은 부산지검을 거쳐 그동안 통영지청에 근무해왔었다。

驪州支院長으로 영전

▲尹汝達(68법학)‖水原地法驪州支院長으로 영전했다。 지난 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최고령자로 합격한바 있는 尹동문은 光州地法·順天支院등을 거치면서 全南지부동창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했다。

▲金東鎭(78법학)‖大邱地法판사로 신규발령되었다。 金동문은 지난77년 제19회 사법고시에 합격, 그동안 사법연수를 받았었다。

▲崔恩洙(77행원)‖大田地法 판사로신규발령됨。

▲尹炳角(78행원)‖水原地法 仁川支院 판사로 신규발령됨。

「백조새마을유아원」開設

▲金永喜(63법학)‖仁川市 주안동 住公아파트內에「백조새마을유아원」을신설, 同원장에 부임。

『영세민지역어린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保育해보고싶단』는 평소의 소망을 이룬 金동문은 남자동문 못지않게 사회활동이 활발, 平和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사회정화국민운동仁川남구협의회위원, 仁川상륙작전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으로 있으며, 仁川동창회理事및 東進會員이기도 하다。

대한教育保險 理事승진

▲權基周(65경제)‖大韓教育保險(주) 교육담당理事로 승진했다。

權동문은 同社 교육부장등을 역임하는등 특히 保險社員교육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오고 있다。

太華企業(주)社長 취임

▲鄭鉉化(66상학)‖지난4월 일반土木공사업체인 太華기업(주)를 설립하고 同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한양주택 상무이사, 한양목재공업 대표이사등을 역임, 土建분야에 밝은 鄭동문은 새기업성장에 정진하고있다。

江原大경상대 교학과장에

▲金丙學(68법학)‖강원대학교 경상대학 교학과장에 부임했다。 법무부전문위원등으로 활약하다가 지난75년부터 강단에선 金동문은 서울產業大 강원大등에서 후진을길러오고있다。

◇경제기획원

▲李漢述(67통계)‖조사통계국기준과에서 동부출장소장으로。

▲金成光(67상학)‖조사통계국에서 동부출장소로。

動資部 등록과장으로

▲韓炫(70행정)‖動力資源部 에너지관리과장에서 등록과장으로 자리를옮겼다。

행정고시 출신인 韓동문은 國稅廳에서 10여년 근무하다가 動資部로 자리를 옮겨 탄정과장, 행정관리관등을 역임했다。

文學評論 1회추천받아

▲金善鶴(70국문·釜山女大교수)‖현대문학 9월호에서 문학평론 1회추천을받았다。 추천작품은「說話의 시적 수용」으로 申東旭씨가 추천했다。

故 趙芝薰동문詩碑제막

故趙東卓(號‖芝薰·41혜전)동문의 詩碑가 慶北 英陽郡 日月面住谷洞에 세워졌다。

이 詩碑는 민족의 대시인인 芝薰趙東卓동문의 문학정신을 기념, 동료·제자들이 뜻을 모아 지난 8월15일 故人의 고향에 세우게 된것。

榮進·轉輔

▲吳晟祿(65법학)‖건설업체인 滿承産業(주) 관리부장으로。

▲鄭元永(66법학)‖설동경찰서교통계장으로。

▲李永春(69경영)‖동서증권(주) 업무부장으로。 李동문은 同社 명동·무교동지점장과 본점채권부장등을 역임했다。

▲李揆浣(69법학)‖농협에서 신한은행 기획부로。

▲李光培(73통계)‖제일제당(주) 당사업부 판매관리과장으로。

▲孫晋一(75경제)‖오퍼상인 LINA 앤터프라이즈로。

▲崔鎭卓(77수학)‖모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원으로。

▲崔鎔春(78법학)‖재단법인 韓國産業開發연구원(KID) 산업조사실 연구위원으로。 崔동문은 培花女專에도 出講, 商法을 담당하고있다。

▲金澤根(79국문)‖삼양사 홍보실에서 京鄕新聞 편집부기자로。

▲鄭경찬(80무역)‖信用保證基金에 入社。

▲金永植(82농경)‖신용보증기금에 入社。

出入國

▲柳根昌(50전문·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업무차 9월18일 渡美, 10월2일귀국예정。

▲禹國一(78행원·본회부회장·한국보험공사보험연수원장)‖美國의 보험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9월14일 출국, 귀국은 9월30일경。

▲金遺腹(51정치·國會議員)‖8월26~28일까지 3일간 미크로네시아연방에서열린 아시아太平洋의원연맹(APPU) 제32차 이사회에 한국의원대표단으로 참석。

▲李範俊(80행원·國會농수산위원장)‖국회농수산위원들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등의 낙농현황과 원양어업실태를 둘러보고 美시애틀에 있는 韓美합작옥수수농장과 日本北海道의 농수산물유통현황도 시찰했다。

▲吳哲求(53정치·흑자경영연구소장)‖日本의 경영실태를 살펴보기위해 9월20일 출국。

▲林德圭(60법학·국회의원)‖8월21일부터 1주일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열린 세계국제법협회총회에 참석했다。 林동문은 同총회참석에 이어 美하바드대학 東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한국통일과 아시아평화」라는 주제의 연설을 가진뒤 9월20일 귀국。

▲李昌億(52정치·前모교체육부장)‖미LA에 거주하고있는 딸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9월21일 도미。

▲李肯珪(65법학·한국記者協會長)‖한국·印尼기자협회 결성을 위해 9월8일 印尼로출발。 李동문은 한국과 印尼의 상호記者교류와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에 관한 방안등을 협의한뒤 9월20일귀국。

▲文貞姬(69국문·여류詩人)‖뉴욕州立大學에서 드라머學을 공부하기 위해 지난8월20일 출국。

▲申相洙(79체교)‖파리大學校 제3대학에 유학하기위해 지난8월15일 渡佛。

▲李潤根(81경행·前한도호국단사단장)‖지난6월1일 出國해 美캔사스州 위치타大學에서 범죄학석사과정을 등록했다。 住所는 Youn Keun Lee'221 N.Hill Side #1313 Wichita Kansas 67219 U.S.A.(Tel) (316) 685-1139。

▲朴鍾永(76·철학)‖지난 7~8月美洲및 구라파 일주를 마치고 귀국。

▲安昌海(76철학·대원고교)‖지난7월22~30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제10차잼버리대회에 인솔교사로 참가한뒤 귀국。

移轉·開業

▲金鼎和(64·경제·前흥국상사仁川지점장)‖원주시 청원동184~3번지에 흥국주유소를 개업。

▲金尙律(49전문)‖인천시북구석남동203~11호로 이사。

▲金泰完(82사학)‖강남구논현동140~19호로 이사。

結婚

▲金聖涉(53정치·본회부회장·대한모방회장)‖9월9일 정오 동대문 동신교회에서 3녀 淳美양 결혼。

▲黃明秀(53정치·국회의정동우회장)‖9월21일(화) 오후4시 수운회관에서 장남 문성군 결혼。

▲朴永煥(50전문·서울市外전화국장)‖9월13일(월) 오후3시 수운회관에서 2남 仁椿군 결혼。

▲金濟萬(55사학·前국회의원)‖10월11일정오 마포구 서교동 영빈예식장에서 長女결혼。

▲梁承輝(80工經·대한보증보험업무부)‖9월19일 정오 대한보증보험 5층강당에서 모교 李震圭 교수를 주례로 본인 화촉。

訃音

▲金殷夏(52정치·국회부의장)‖9월19일 伯兄 別世。

▲金圭喆(64법학·서울여상)‖8월15일 喪配。

▲蔡奎敏(65정외·東亞건설산업 전무이사)‖8월24일 母親喪。

▲金文燦(72경영·대호원양상무이사)‖8월25일 父親喪。

▲高仁浩(74농학·농장경영)‖8월13일 父親喪。

▲黃來烈(78체교·모교학생생활과)‖8월21일 母親喪。

▲金洪萬(70행정·新社黨당기위원장)‖9月9日 母親喪。

▲車峻煥(75전자工·모교經理科주임)‖9月10日 父親인 車기돈씨(前모교직원)씨 別世。

▲金炳吉(73국문·中央日報편집부)‖9月12일 祖母喪。

김성배 정년퇴임 모교師範大敎授

한글순화운동등에 앞장서와

東岳에서 12년간 공부·20년 강의

聖峰 김성배(師範大·國敎科)교수가 母校강단을 떠났다.

늘 푸르름을 잃지않고 누구에게나 부드러운것 같으면서도 내심은 매운 지조를담고 사는 青蘭처럼, 그렇게 살아온 聖峰선생이 정년을 맞은 것이다.

『전문학교 시절부터 박사과정까지 12년을 東岳에서공부했고, 20여년을 내집처럼오르내리며 강단에 섰지요』 그래서인지 『구태여 정년퇴임이라는 의미도 실감나지 않고 또 그런생각을 갖고싶지도않다』고 소감을 밝힌다.

그가 가진 국문학과 관련된 20여개의 직함이 말해주듯이 한글학자로서 또는 국어교육학자로서 聖峰선생이이루어 놓은 발자취는 비단母校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그 업적이 단연 빼어나다.

특히 한글순화운동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한 것은 열성의 도를 넘어선 극성스러웠을정도. 수십차례 쫓아다니며 김포공항의 간판을 끝내「金浦空港」에서「김포공항」으로바꿔놓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또한 1963년「국어교육학회」를 발족시켜 현재까지이끌어오면서 국어교육의 발전을위해 쉼없이 노력해온것도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외골수로 살아온 그의 인품을 보여준다.

『요즘 일선교사들 중에는 교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못하고 자기직업에 만족하지않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요. 좀더 확고한 교육관을 갖고 학생들에게 모든 정열을 쏟을수있는 의지가 아쉽기만하다』고 말하는 김교수는「세태에 흔들리지않고 목표를세워 한눈팔지않고 정진해나가는 뚝심있는 젊은이가 되어줄것」을 당부한다.

40여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한번않고「만점 선생에 만점 남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모님의 따뜻한 배려속에 요즘은 자신의 저서「한국의 민속」의 日文·英文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교포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고 싶어서라고.

◇성봉선생 약력 ▲문교부 국어과장학위원▲국어국문학회 평의원 ▲한글학회 이사 ▲한글문화인류학회 회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국어교육학회장 ▲불교용어 심의위원▲민속문학추진회 위원 ▲한국민속학회 회원 ▲바른말 고운말 담당위원 ▲외솔회부회장 ▲국어순화운동 전국연합회 부회장 ▲노산문학회 회장▲한국비교문학회 회원 ▲서울시교육회 부회장 ▲서울시 88올림픽대회추진위원등을역임.

“矜持와 보람키운「스승의길」한평생”

金濟東 停年퇴임 仁川高校長

「勤勉·信義·勇氣·단결」강조

金濟東(43혜전)동문이 仁川高等學校長을 마지막으로 지난 8月28日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40여년동안 우리나라 중등교육계에 몸바쳐 수많은 人材를 길러낸 金동문은『교장으로 교직원과 학생을 지도했다기 보다는 많이 배웠으며 성의껏 했지만 일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것 같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뿐이다』고 회고한다.

◇金 동문

교직 틈틈이 써온 글들을 모아「라일락香氣」와「떠나고 싶지않은 樂園」등 두권의 수필집을 내기도한 金동문은『교직자는 오로지 올바른 인간영혼의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게보고 바르게 가르치는 師道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교단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제물포고등학교장 재직시는「무감독시험제」를실시, 전국에서 손꼽히는名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던 金동문은 교단에서「근면, 신의, 용기, 단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오곤 했다.

京畿道敎委의 重鎭으로 정년퇴임을 맞게된 金동문은 道敎委 학무국장 楊平農高, 水原北中, 公州師範, 京畿水産高, 濟物浦高, 仁川女高교장등을 역임했다.

金동문은 정년퇴임식에서 교육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冬栢章을 받았으며, 仁川지부 고문으로 동창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오고있다.

鄭根謨 停年퇴임 光女高교장

교육의 重要性 깊이 새겨야

鄭根謨(44혜전)동문이 半平生을 바쳐온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맞았다. 光州女高교장을 마지막으로 교직을 떠난 鄭동문은 누구보다도 교육에 몸담게된 이유가 뚜렷하다. 그도 그럴것이 鄭동문은 학도병출신으로 국가없는 서러움, 배우지못한 민족의 비통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鄭 동문

『日帝침략기에 활약했던 세대와 해방후 세대의架橋역할을 충실히 하는것만이 우리세대의 책임으로 알고 열심히 가르칠뿐입니다.』

『헨리 반 다이크」의무명교사 예찬처럼 교직은외롭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百年之大計의 소명감이 교원의 긍지를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을잇는 노교육자의 안경너머 조용한회상은 자기직업에 대한 변호라기보다는 교육의 중요성에대한 역설처럼 들린다.

全南道內 교육자가운데서도 원로로 존경받고 있는 鄭동문은 광주시 교육장, 전남여고, 서광여중교장등을 역임했으며, 교육계봉사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鄭동문은 특히 본회전남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지역동창회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해왔었다.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東國의 傳統

〈30〉

物理學

1954년 2월 1일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생물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文科大學이 文理科大學으로 개칭되면서부터 본교에도 자연과학 분야에 새로운 학문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물리학과가 개설된지 4반세기가 지난 이제 잠시 지나간 28년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학과 개설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리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金榮咸 교수는 物性物理學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고 있으며 그의 主要論文으로는 실리콘 표면의 Texturing및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오늘날 각광을 받고있는 레이저광학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갖고 그 연구에 매진하고있다.

또한 물리학과 창설 멤버였던 전직교수로는 중앙관상대 대장을 역임하고 부산대학교에서 기상물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양인기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장을 역임하고 핵물리학을 강의하고있는 김현창교수, 아주대학교 초대학장을 역임하고 고체물리학을 담당하고있는 김현남교수등이 오늘의 물리학과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한 교수들이다.

大學院 중심體制로 탈바꿈

慶尚大에만 東國物理家族 5名

OECF借款機材로 硏究 활기

그 외에 잠시 물리학과 교수로 봉직한 다음 영국에 장기체류중인 김준명교수 미국으로 이주한 오신근교수, 한국 과학원에서 소립자물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병하교수등을 들수있다.

특히 1969년부터 1978년 1학기까지 물리학과에 봉직하는 동안 학부및 대학원에 새바람을 일구워 주었던 故 金熙圭교수는 한국 물리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동국대학교에 고체물리학을 심어 주는데 크게 활약한 대표적인 학자이었으며, 그의 주요 논문으로는「초음파 감쇠에의한 금속 결합에 관한 연구」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힘을 입어 현대 물리학과는 학부 중심체제에서 대학원중심 체제로의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는 300명이상의 학부졸업생과 주로 연구분야에서 종사하고있는 이학석사 31명, 이학박사 6명을 배출시켰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16명 박사과정 수료자및 재학생 20명을 포함하여 40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이 고체물리학 분야및 핵물리학 분야에서 연구매진하고있다.

본대학원 물리학과에서 이학박사학위 취득후 각대학에서 종사하고있는 교수들의 전공분야및주요논문을 열거하면 본교 물리학과교수인 洪致裕는「고체물리학분야에서 유리속의 철 이온의 훼스바우어 효과연구」를 비롯한다수의 논문을 발표한바있다. 역시 본교교수인 姜泰遠은 고체물리학분야에 신진학자로서 맹활약중에 있으며 그의 주요논문은「리튬이온이 주입된 실리콘의 열 자극 전류에관한연구」논문외에 다수의 논문을 물리학회에발표한바있다.

또한 광운공대에 봉직하고 있는 강승언교수 역시 고체물리학 분야에서「리튬이온 주입및 전자선을 조사시킨 폴리에스테르의 열자극과정에 관한 연구」등 많은 논문을 발표한바 있으며 재미있는 현상으로는 진주시에있는 경상대학교 물리학과에 봉직하고있는 최규황, 김인호, 최문석교수, 이들 모두가 고체물리학을 전공하여 본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며 이들은경상대학교에서 동국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교수로 재입중이다. 이외에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최홍수교수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정주씨는 박사과정 5학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동국의 물리가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곳이 경상대학교라 하겠다.

그리고 동문 교수로 대구대학교에 신영남 교수, 충북대학교에 이재봉 교수등이 있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남대학교의 김화택 정석종 교수등이 고체물리학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박사과정 재학중에 있는 홍익대학교의 이수완교수는 핵물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카톨릭 의대의 최달하 교수와 제주대학교의 홍성라 교수등이 또한 고체물리학분야에서 촉망을 받고있는 신진학자로서 발돋움을 하고있다. 이와 때를같이하여 물리학과에 금학기에 導入되는 OECF차관 80만불에의한 실험실습기재재및 연구용실험기재에 힘입어 大學院中心體制로 가속화될 물리학과발전에 기대되는바 크다는것을 덧붙이고싶다

〈洪致裕교수제공〉

우리모두 精誠모아 알뜰名簿 만듭시다

—會員카드 10月15日까지 接受

「東國人名錄第5輯」發刊작업이 많은 同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당수 同門들의 現所在가 정확히 파악되지않고 있어 알찬 會員名簿제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아직도「會員카드」를 보내지 않은 同門이 있읍니까? 또 자신이 알고있는 東國人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은 분이 있읍니까? 現在 貴同門의 주변에 散在해 있는 同門들의 住所나 職場, 또는 수첩에 기재되어있는 電話番號만이라도 本會 事務局에 꼭 알려주십시요. 이를 확인, 名簿에 登載하는 것은 물론 東友會報도정기적으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本會에서는 한사람의 會員이라도 빠뜨리지 않기위해서「會員카드」송부마감을 오는10月15日까지 연기하고계속접수중에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더 同門찾기에 협력해 준다면 명실상부한 名簿를 만들수 있읍니다. 거듭 同門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회원들을 빠짐없이 기록,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서울 중구 필동3가26
동국대학교동창회 사무국

1982년9월 일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鄭在哲

「東國人名錄」제5집 購入신청接受中.!

「東國人名錄」제 5 輯이 금년 11월末에 발간됩니다. 각大學別, 年度別로 同門들의 현주소·직장·전화번호등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수록될 이 명부는 6만東國家族의 눈과 발이되어 서로를 긴밀하게 엮어줄 가교가 될것입니다.

本會에서는 각同門會 支部·支會를 비롯하여 年度別·科別·개인별로 명부구입 신청을 받고 있읍니다.

◇代金 : 권당 1 만원

◇代金納付 :
①本人이 事務局에 직접납부
②우편대체구좌 525669번납입
③국민은행온라인구좌068—01—0031—203번납입

연락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26
동국대학교 동창회 사무실
전 화 : (직통)267—8568(교환)267—8131(교)465

東國大學校同窓會事務局

東友會 스크린

釜山支部

會員 1천여명, 각계각층서 활약

매년「東國人의밤」…진한 東友愛나눠

우리나라 제2의 도시요, 제1의 항구도시로 잘알려진 한반도의 東南端 釜山. 3백30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부산에서 1천여東國人이 진한 동우애를 나누며東國人의 긍지를 일깨우고있다.

지역단위중 그규모나 역사, 또한 활동면에서 단연 앞장서고있는 釜山지부.

動亂때 胎動, 30년 歷史

이 부산지부가 정식창립된것은 1966년의 일. 그러나 이미 6·25사변후 피난지에「釜山戰時聯合大學」이 설치될 당시 몇몇동문들이 동문들을 모아 동우애를 심어나간 것이 최초의 활동이 되었다.

『당시 부산에 있는 몇몇안되는 동문들은 피난온 모교교수및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돕기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곤 했죠』―부산지부 李鍾源고문의 회고담이다.

그뒤 戰時大學이 해체되고 모교가 서울로 다시 옮겨감에 따라 몇몇 모이던 동문들마저 뿔뿔이 헤어져 지부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점은 서울본부동창회의 소극적 활동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金容彩現회장은 지적한다.

이렇게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1963년 다시 종립학교인 해동고등학교장 申正均동문을 중심으로 元老동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1~2년이 못가서 다시 흐지부지되고 1966년 吳福根동문이 釜山市교육감이 되면서 교직동문을 중심으로 동창회의 재건을 보게 되었다.

당시 金容彩동문이 경영하는 서울예식장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모인 숫자는 30~40명. 이자리에 모인 동문들은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모교역사에 비추어 釜山동창회가 아직 제대로조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부끄러운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임원을 선출, 정식 동창회를 出帆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때 초대회장에 吳福根, 부회장에 金容彩, 이광훈동문이 선출되었다.

이어 釜山지부는 몇년간의명맥을 유지해오다가 다시 한계점에 봉착했다. 그것은 동창회를 이끄는 뚜렷한 구심점이 없고 경비가 뒷받침이 안되기때문이었다.

이렇게 다시 10년을보내고 1976년 釜山지부는 母校의 地方순회학술강연회팀의 방문을 받게되었다.

모교70周계기로 再整備

모교가 개교70주년을 기념하여「민족과 민족文化」를 주제로한 학술강연회를 열게된 것이다.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釜山지부는 金容彩 朴東昊 李鍾成 辛翔敎 李炯基 李炳華 鄭岱薰동문등이 중심이되어 프랭카드를 준비하고, 교직동문을 중심으로 청중확보에 東奔西走했다.

趙演鉉교수의「한국文學의 進路」, 李箕永교수의「民族思想의再發見」을 주제로 강연이열린 초량동 태평양빌딩 강당에는 4백여명의 釜山시내 고등학생및 시민이 운집하는大盛況을이루었다.

이 강연회행사에는 당시 본부동창회에서 崔載九회장을비롯, 부회장 朴敬熙, 사무국장 尹天泳동문등이 출장, 격려하는한편 釜山지부 재건을독려하기에이르렀다.

이렇게하고도 다시 再建총회를 가진것은 1년뒤의 일. 제2회 모교학술강연회가 徐廷柱 張庚鶴교수를연사로「한국의 傳統」주제아래 열리고 난뒤였다.

두차례의 모교학술강연회팀을맞고난 釜山동문들은『自愧하는 마음으로 하루 빨리 釜山지부를活性化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몇차례의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고려호텔3층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2대임원진을 선출하고 1백여명의 참석 동문들은『다시는 不振지부의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때 선출된 임원들을보면 고문 李康郁 金容彩 李鍾源, 회장에 朴東昊, 부회장에 南基碩 金和燮 李鍾成 朴경烈 申相斗, 감사에 金善斗 辛翔敎, 간사장에金萬淵동문등이었다.

제2대 임원진은『정체상태에서활동하는 동창회로, 단절상태에서연결되는 동창회로, 內實을 기해나간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同年12月22日에는 제1회「釜山東國人의 밤」을 고려호텔에서 열어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조직확대를 꾀하는 한편 78년에는 회원명부를 제작했는데, 명부에수록된 회원은3백여명을 헤아렸다.

이어 釜山지부는 지난80年 12月28日「東國人의 밤」행사겸 정기총회에서 朴東昊회장을 유임시키는등 임원진을 새로구성했다.

제3대가된 이때 임원진은 고문에李種源 金容彩 李康郁 黃在萬 辛翔敎, 회장에 朴東昊, 부회장에 邊永傑 李鍾成 南基碩 高홍錫 曺泰鎬, 간사장에 金萬淵, 간사에 鄭岱薰 鄭學周, 감사에 姜仁植 崔源澤동문등이었다.

다시 지난 81년「東國人의밤」겸 定期총회에서는 金容彩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는등 現제4대임원진을 구성, 성장기반을 더욱다지게 되었다.

他大동창회 귀감돼

부산지부가 해온일은 많다. 지난77년부터「釜山동국인의밤」을개최,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다져옴은물론 慶州大기념식수, 회원경조사참여, 동문들의 부산전입·전출시 환영·환송회개최, 마산·울산·포항등지의 인근지회와의 유대긴밀등이 一例이다. 뿐만아니라 본부동창회와의 유대긴밀을 꾀하고 있으며 매년 거르지않고 年會費를 단체로납부하고 있기도하다.

『우리 釜山지부가 어느 다른大學동창회보다 잘되어 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한번은 Y大동창회간부가 우리 모임을 지켜보고 한말 그대로 많이 모이고 화기애애한점에 놀랐다는 거예요』라고吳壽玄동문이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준다. 확실히 오늘의 釜山지부는 한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다.

부산지부에 소속된 동문들의활동영역은 다양 하다. 釜山市內 中高교장만해도 30여명이 되고 釜山大·產業大등에 10여명의교수, 金萬淵감사실장등 釜山市에10여명, 釜山市警에 20여명, 申相斗부산지검부장검사, 경남도청, 각시중은행지점, 言論機關, 변호사, 세무사, 승려, 개인사업등 종사분야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이들은「東國」의 이름아래 서로 굳게 모이고 있다.

『釜山지부발전의 밑거름은 회원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도있지만在釜동국회의 뒷받침이크지요.

釜山지부의 임원급이 주축이 된 在釜東國會員들이 동창회 활성화에 극성을 보인답니다. 釜山지부再建보다는 오히려 在釜東國會출범이 앞섰죠. 在釜東國會는 매월28일 월례회를 갖고있으며 격월로 부부동반 모임을 하고있읍니다』라고 孫宗明동문은 在釜東國會의 역할을 강조한다.

『현 釜山支部長이며 在釜東國會 초대회장을 지낸 金容彩동문이 누구보다도 부산동창회의 견인차역할을 했지요. 초창기부터현재까지 계속 임원으로 참여, 동문들간의 유대강화에 헌신해오고있죠』라고 安遺浩간사장이 金지부장의 숱은 공로를 밝힌다.

본부와 유대긴밀 도모

『이기회에 본부동창회에 몇가지 건의가 있는데, 첫째는 지방동창회에 보다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것과 둘째, 본부회장단에 부산지부장을 당연직으로참여시켜줄것 셋째, 釜山등 각지역동창회 행사시에 회장단에서 꼭한사람이라도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5년간 在釜동국회간사장을 지낸 高홍錫동문이 열을 올린다.

『모교야구부가 釜山시장기대회때마다 참가하는데 좀 이겨줬으면해요. 萬事를 제치고 운동장까지나가 프랭카드를 내걸고 응원하는데도 모교팀이 지고나면 맥이풀리죠. 앞으로 우수선수를 스카웃해서라도 승리를안겨줬으면 해요』하고 金萬淵동문은 지적한다.

『釜山동창회는 자신이있읍니다. 모든 회원이 열심이고, 또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중견으로 활약하며 긍지를 일깨우고 있죠. 사실 기업·관공서에 東國人이 없는곳이 없죠』라고 金容彩회장은 강조한다.

앞으로 金지부장은 동창회현판식을 서둘러 가진다음 基金조성으로 內實에 중점을 둔 支部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한다.

◇釜山지부는 매년「東國人의밤」을열어 회원간유대를 강화해오고있다.

◇釜山支部 現임원진

직 위	성 명	졸업년도	현 직
고 문	李鍾源	42혜전	부산西中校長
〃	辛翔敎	52경제	삼신시멘트상사대표
〃	朴東昊	57임학	효성수산사장
회 장	金容彩	54법학	第一·高麗호텔사장
부회장	邊永傑	50문학부	경남종합농장경영
〃	南基碩	61법학	선화여상교장
〃	高홍錫	60정치	黑友會 회장
〃	金萬淵	62정치	부산시청감사실장
〃	金大商	56정치	부산MBC이사
감 사	黃在萬	54경제	세무사회부산지부장
〃	吳壽玄	57경제	합동잉크공업사장
간사장	安遺浩	57경제	대영어망공업사장
간 사	鄭岱薰	66국문	낙동고교사
〃	孫承煥	61정치	북구청 사회과장

◇釜山支部 임원진

李鍾源 고문

辛翔敎 고문

朴東昊 고문

金容彩 회장

邊永傑부회장

南基碩부회장

高홍錫부회장

金萬淵부회장

金大商부회장

黃在萬 감사

吳壽玄 감사

安遺浩간사장

각급 單位동우회 代表者회의 召集

本會는 금년도 力點事業인 東國人名錄제작, 奬學事業, 會費增大등에 總力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에 각종 事業을 알차게 마무리 짓기위하여각급 單位代表者회의를 다음과같이 召集하오니 빠짐없이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日 時=1982年 9月28日 오후6시30분

◆場 所=모교本館교수세미나실

◆參加범위=각급單位(직장·학과·친목별 東友會)의 會長, 또는 간사장

◆案 件=①단위조직 활성화방안
②東國人名錄발간협조요청件
③각급任員경주대학방문의件
④금년도 主要事業공지
⑤其他事項

※기타 자세한것은 동창회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9월 일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鄭在哲

공 고

제5회 同窓會長盃 쟁탈 테니스大會 개최

드높은 가을하늘아래 東國人의 氣像을 떨칠제5회 東國大學校同窓會長盃쟁탈 테니스大會를 다음과같이 개최합니다. 純銀盃를 놓고 A·B·C 3개組로 나뉘어 技倆을 겨룰 이大會에 테니스同好人 여러분의 많은 參加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日 時=1982年9月26日 (日) 오전9시~오후6시

◆場 所=모교테니스코트

◆參 加 費=5천원

◆申請期間=1982年9月20~25日 오후5시까지

◆申請場所=동창회사무국 (전화 ㉗8568、또는 모교 구내465번)

◆參加범위=同門·敎職員

※기타 자세한것은 동창회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82年9月 日

東國大學校同窓會

東國테니스會

博士8·碩士1백42명 誕生

4개大學院 後期卒業式 거행

母校 1982學年度 각大學院 後期學位 수여식이 지난 8월28일（土）오전11時 중강당에서 거행되어 博士8名、碩士1백42名이 새로 배출되었다。

黃총장은 이날 치사를통해『東國發展을 위해서는끊임없는 학문연구만이 첩경이다。』고 강조하고 학교발전을위한 밑거름이 되어줄것을 당부했다。

◇鄭明五 哲博

◇金甲周 文博

◇嚴琦燮 經博

◇權元達 經博

◇金利泰 經博

◇崔泳宇 理博

◇金泰東 理博

◇姜泰遠 理博

각大學院 박사및 석사학위 취득자명단은 다음과같다。

◇博士學位취득자

（프로필은 성명 학위명 출생지 출신대학 경력 논문제목順）

◇鄭明五（哲學博士）▲서울生 ▲서울대철학과 ▲인하대철학과교수 ▲「Martin Heidegger에 있어서의 존재와 思惟와 진리의 본질」

◇金甲周（文學博士）▲경북生 ▲경북대社會科 ▲母校 전임강사 ▲「朝鮮時代寺院經濟研究」

◇嚴琦燮（經濟學博士）▲경기도生 ▲中央大經濟學科 ▲중앙직업안정위원회 위원역임 ▲「日帝下 小作·勞動爭議의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權元達（經濟學博士）▲서울生 ▲高麗大 農經科 ▲忠北大교수 ▲「忠北地方의 채소류 流通構造와 機能에 관한 研究」

◇金利泰（經濟學博士）▲경기도生 ▲母校 經濟科 ▲서울市立大교수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稅源再配分에 관한 研究」

◇崔泳宇（理學博士）▲경북生 ▲慶北大 數學科 ▲효성여대교수 ▲「Hypersurfaces with partially integrable structure of an odd-dimeional sphere」

◇金泰東（理學博士）▲서울生 ▲서울大 數學科 ▲한양大교수 ▲「The structure of the fixed charge transportation new work problem」

◇姜泰遠（理學博士）▲서울生 ▲母校 物理學科 ▲母校 강사 ▲「低에너지 Li+이온이 注入된 Si의 TSC에관한 研究」

◇大學院碩士

▲文學=장성식 전종식·최명화·유병환·강호숙·임명순·홍재선·韓相禹·方泰守 ▲法學=황성준▲政治學=이경세 ▲行政學=허문명·이윤호·윤관희 ▲經濟學=이웅호·김광득▲經營學=문명률·서종득·이천기·노철우·번하드·커스트·천유식 최진탁 ▲理學=이민희·이수장·이재진·정재순▲農學=이상섭·서정수·서덕규·▲工學=조원상·강기영·한규태·朴漢廷·오성진·김용기·남주순·이동형▲體育學=문대성

◇行政大學院碩士

▲行政學=홍갑유、이대희 욱이호、최무정、안병길、이중호、박근제、이태환、김종호、홍원기、홍진표、김동안 권재병、정연우、박정윤、심일윤、심일순、박병희、송칠원、김덕수、김용렬、장석린 김호창、이도섭、염창균、지장현、김인한、양희윤、이서 이영록、朴煥仁 ▲教育學=하석호

◇經營大學院碩士

▲經營學=서진호、정영찬 한상문、김국환、송태민、신성철、이숙희、한윤경、김정겸、이승주、김진억、고두희 류진성、박영웅、박종기、박종필、서충구、윤웅섭、양승철、이영하、박병섭 ▲會計學=이정혜、정상진、한철규

◇教育大學院碩士

▲教育學=홍현수 추교정 변종식 한정광 이은집 조병갑 강홍선 김희 이해도 이근철 하용선 김영동 허전 이점원 손동진 이홍원 김영종 박명순 이분 심정수 김민회 이용휘 최충웅 한영섭 최태신 홍인표 함종섭 오윤회 최수만 박동호 이상래 김진현 배기열 김태동 조두섭 송영섭 정진 김갑철 조성회 이호연 고영본 이종윤 김재중 강석국 조종락 최연화 양희석 황복현 이태섭 이득영

會費入金現況

◇常務理事會費

▲禹順伊（60정치）=20만원
▲金弘模（66상학）=〃
▲尹鎰均（68행원）=5만원（一部金）
▲金鍾洙（59경제）=20만원
小計=65만원
累計=2백75만원

◇監事會費

▲李能熙（65상학）=10만원（一部金）

◇理事會費

▲金益相（65법학）=5만원
▲林 和（55법학）=〃
▲李運永（70농학）=〃
▲沈春燮（62정치）=〃
▲金洛天（79행원）=〃
▲孔珍植（61경제）=〃
▲李義邦（55법학）=〃
▲柳國衡（64상학）=〃
▲吳哲求（53정치）=5만원
▲金泰佑（63화학）=〃
▲李周炯（65경제）=7만원
▲李炳華（64정치）=5만원
▲金東吉（61경제）=〃
▲金勝雄（72경영）=〃
▲李昌億（52정치）=〃
▲尹昌鎬（55영문）=〃
▲南時奕（58정치）=〃
▲朴道根（65상학）=〃
小計=92만원
累計=3백24만원

◇年會費

〈團體納付分〉

▲釜山지부（회장 金容彩）=15만원
▲大京中商高（申榮澈外）=4만원
▲韓國投資信託（회장李義邦）=10만원
▲韓國火災保險協會（회장宋光燮）=5만원
▲國會（회장 金殷夏）=9만5천원

〈個人 납부분〉

▲金東昊（76통계）=5천원
▲金洙喆（51경제）=〃
▲羅秉燦（82전산）=〃
▲宋旭燮（79정외）=〃
▲金鍾化（79정외）=〃
▲安敬培（82물리）=〃
▲朴載璟（82전산）=〃
▲尹相敏（82전산）=〃
▲具本瑛（77경영）=〃
▲鄭夏診（79경영）=〃
▲玉二鎬（80행정）=〃
▲韓明煥（81경영）=〃
▲丁瑩紀（78행정）=〃
▲金潤煥（80경영）=〃
▲韓敏洙（79전산）=〃
▲趙崎衍（76통계）=〃
▲申 權（82전산）=〃
▲李慶學（82수학）=〃
▲閔炯良（82전산）=〃
▲金奉永（75행정）=〃
▲朴程均（76전공）=〃
▲柳泰植（81경제）=〃
▲崔天一（80경영）=〃
▲沈祥燮（77식공）=〃
▲金榮燮（79농경）=〃
▲安東錫（77행정）=〃
▲張泳敏（77통계）=〃
▲金朱泰（70정외）=〃
▲趙成根（81법학）=〃
▲張允山（80통계）=〃
▲柳基榮（65영문）=〃
▲金一煥（70경제）=〃
▲金性在（80전산）=〃
▲金 穆（72상학）=〃
▲申憲燦（81전산）=〃
▲尹東基（82전산）=〃
▲金洙鉉（79무역）=〃
▲李啓明（73무역）=〃
▲車榮浩（78공경）=〃
▲鄭永鎬（80경제）=〃
▲金龍燮（79수교）=〃
▲宋基元（74무역）=〃
▲曺相鎬（78행정）=〃
▲李勝辰（81농경）=〃
▲洪性學（80무역）=〃
▲金東源（81경영）=〃
▲李鍾洙（78무역）=〃
▲梁士謙（60국문）=〃
▲吳在用（76영문）=〃
▲宋昌林（75행정）=〃
▲李榮鐸（57경제）=2만원
▲李明馥（49전문）=〃
▲金昌逑（81경영）=5천원
▲吳晟祿（65법학）=〃
▲金正淵（71상학）=〃
▲孫 晟（82법학）=〃
▲閔鍾植（74행정）=〃
▲林昌祐（56경제）=〃
▲李泰漢（73경영）=〃
▲朴鍾憲（70상학）=〃
▲金昞鶴（76전산）=〃
▲高興新（79전산）=〃
▲李南鉉（69농경）=〃
▲元鍾燦（80공경）=〃
▲高光旭（80국문）=〃
▲金南瑄（79정외）=〃
▲宋賢喆（80경영）=〃
▲馬基永（76경제）=〃
▲鄭殷模（81경제）=〃
▲黃迪祥（80경영）=〃
▲方斗勳（81경제）=〃
▲林英虎（78행정）=〃
▲洪鍾寬（76경영）=〃
▲姜龍熙（82무역）=〃
▲崔亨基（77무역）=〃
▲劉長平（69법학）=〃
▲尹賢燮（82전공）=〃
▲許昌秀（82전공）=〃
▲李龍水（65법학）=〃
▲이항헌（　）=〃
▲宋堯翊（82행정）=〃
▲孫在觀（77무역）=〃
▲金泰榮（82경제）=〃
▲金鴻烈（65경행）=〃
▲趙秉燁（78행정）=〃
▲安秉淑（78법학）=〃
▲金鍾洙（59경제）=3만원
▲吳仁澤（79경영）=5천원
▲黃河永（79무역）=〃
▲徐有昌（66상학）=〃
▲李勳錫（81전산）=〃
▲李敬世（80정외）=〃
▲白炯基（80경제）=〃
▲白根靑（80무역）=〃
▲高舜相（79행정）=〃
▲李鍾大（81법학）=〃
▲河竣洪（80수학）=〃
▲金得寧（80물리）=〃
▲郭星鍾（78무역）=〃
▲金元哲（75영문）=〃
▲崔潤澤（75정외）=〃
▲李昌吉（78통계）=〃
▲崔容根（78입학）=〃
▲李聖煥（78전산）=〃
▲金復希（72경제）=〃
▲林應來（82행정）=〃
▲趙顯榮（72상학）=〃
▲李相旭（80수학）=〃
▲裵恒植（80경영）=〃
▲李永斗（80경행）=〃
▲柳尙東（77전산）=〃
▲李相熙（80전산）=〃
▲陳炳石（80경제）=〃
▲李大鉉（80수교）=〃
▲李善根（82경영）=〃
▲崔炳大（식공）=〃
▲朴廣奎（82경제）=〃
▲權熙佰（82회계）=〃
▲李性燦（75체교）=〃
▲李胤錫（75무역）=〃
▲文範植（74무역）=〃
▲王熹悅（72상학）=〃
▲鄭在鉉（68통계）=〃
▲安永燮（82회계）=〃
▲李年錫（74경행）=〃
▲李光洙（81무역）=〃
▲河敬浩（67법학）=〃
▲金鉉仁（79정외）=〃
▲金滿斗（64정치）=〃
▲鄭鍾福（81경행）=〃
▲李泳倫（81법학）=〃
▲許 薰（82영문）=〃
▲朴和永（72경행）=〃
▲尹一善（81회계）=〃
▲姜信濟（82토공）=〃
▲李弘雨（80체교）=〃
▲朴鍾浩（81토공）=〃
▲朴晃用（74경제）=〃
▲南正柱（79경행）=〃
▲金潤才（80경행）=〃
▲金桓鎭（80경행）=〃
▲蔡一均（77영문）=〃
▲韓聖日（78경제）=〃
▲朴散鎬（80경영）=〃
▲강운선（81무역）=〃
▲崔京鎬（78경영）=〃
▲千璣勝（82무역）=〃
▲金鍾悅（81경영）=〃
▲申敎植（79경영）=〃
▲최중원（82무역）=〃
▲鄭一亨（76영문）=〃
▲金宗鉉（79전산）=〃
▲尹仁畿（63통계）=〃
▲姜斗淳（78영문）=〃
▲黃義淳（81회계）=〃
▲鄭國永（64국문）=〃
▲黃福東（55국문）=〃
▲兪漢根（81대원）=〃
▲鄭燦周（80국문）=〃
▲劉榮鍾（79무역）=〃
▲崔煥吉（64경제）=〃
▲羅旭燦（71영문）=〃
▲李閏薰（81정외）=〃
▲金裕泰（80경영）=〃
▲金益洙（78철학）=〃
▲閔俊基（62사학）=〃
▲李英鎬（77경영）=〃
▲鄭相燮（78영문）=〃
▲李昌吉（80전산）=〃
▲申弘澈（68상학）=〃
▲金誠一（78경영）=〃
▲李東勳（78경제）=〃
▲朴弘在（81농경）=〃
▲鄭秀世（71경제）=〃
▲洪孝基（73농경）=〃
▲權基重（71경제）=〃
▲金學榮（77경영）=〃
▲李鍾彦（82무역）=〃
▲芮大根（82무역）=〃
▲金光洛（81통계）=〃
▲金政哲（74경영）=〃
▲金宗洙（79경영）=〃
▲安載善（78국교）=〃
▲홍건식（78영문）=〃
▲趙成用（78경영）=〃
▲羅炅俊（75경영）=〃
▲韓辱愚（75경영）=〃
▲金容均（71행정）=〃
▲全重根（69상학）=〃
▲徐東駿（70경영）=〃
▲趙炳勳（74무역）=〃
▲崔榮喆（81회계）=〃
▲閔光德（80무역）=〃
▲李東澈（80경영）=〃
▲姜鎭雄（72상학）=〃
▲李仁根（78경영）=〃
▲金鎭泰（77무역）=〃
▲劉昊鍾（78경영）=〃
▲崔載明（81회계）=〃
▲金宗柱（77경영）=〃
▲芮明雲（52경제）=〃
▲李元揆（75국문）=〃
▲金周燮（61수학）=〃
▲崔相仁（80수학）=〃
▲尹洪圭（67화학）=〃
▲趙炳浩（66정외）=〃
▲朴永燮（64영문）=〃
▲金光英（63경영）=〃
▲金昌基（77행정）=〃
▲金秉卨（63경제）=〃
▲洪性克（63경영）=〃
▲辛元夏（63경영）=〃
▲李起本（67농화）=〃
▲李鍾喆（77농화）=〃
▲朴林成（　）=〃
▲安昌遠（75정외）=〃
▲劉鍾模（82식공）=〃
▲韓鍾錫（79행정）=〃
▲金忠國（63국문）=〃
▲李吉成（78정외）=〃
▲朴五奎（66경제）=〃
▲박진규（69농학）=〃
▲朴英緖（69농학）=〃
▲崔光義（63법학）=〃
▲金熙永（77수학）=〃
▲崔源虎（78사교）=〃
▲許鍾元（80국교）=〃
▲梁熙元（80국교）=〃
▲李潤采（77사교）=〃
▲安昌海（76철학）=〃
▲裵應九（78사교）=〃
▲韓昇熙（80화학）=〃
▲金容福（76국문）=〃
▲秦讚希（80수교）=〃
▲金斗植（50전문）=〃
▲崔允植（50전문）=〃
▲朴榮起（58경제）=〃
▲李世福（78사교）=〃
▲金馨權（50전문）=〃
▲郭再熙（65경영）=〃
▲任在彬（63경제）=〃
▲潘俊雄（60법학）=〃
▲崔熙天（51정치）=〃
▲李明善（74농화）=〃
▲洪慶杓（62법학）=〃
▲姜眞照（65경영）=〃
▲韓相榮（62정치）=1만원
▲鄭官熹（72통계）=5천원
▲金晶培（56경제）=1만원
▲姜明植（63경제）=〃
▲권오주（82행원）=5천원
▲申福澈（69정치）=〃
▲金 鐸（71경제）=〃
▲鄭德鉉（74화학）=〃
▲李明求（77회계）=〃
▲丁明洙（77경영）=〃
▲張應遠（69경제）=〃
▲洪雄基（77전기）=〃
▲張成煥（78경영）=〃
▲李漢載（73행정）=〃
▲鄭澤班（62사학）=〃
▲金顯權（71경제）=〃
▲李永福（80승가）=〃
▲金大元（65경제）=〃
▲高一雄（65경제）=〃
▲金德壽（65행정）=1만원
▲洪鍾寬（76경영）=5천원
▲金昞澤（77대원）=〃
▲高益賢（60사학）=〃
▲金南班（61국문）=〃
▲崔海龍（63법학）=〃
▲金正容（64사학）=〃
▲南福斗（64물리）=〃
▲양봉기（81경원）=〃
▲河鉉玉（71수학）=〃
▲高瓏吉（65법학）=〃
▲林景燮（61사학）=〃
▲南相斗（73경영）=〃
▲金鎭甲（65법학）=〃
▲鄭曝喆（80경원）=〃
▲裵基述（65법학）=〃
▲李炯世（65국문）=〃
▲鄭在權（60국문）=〃
▲金洪卨（67경영）=〃
▲金時中（67국문）=〃
▲張大烈（82전기）=〃
▲尹鎰均（69행원）=〃
▲田炳烈（57국문）=〃
▲金榮一（65영문）=〃
▲河弼壽（60법학）=〃
▲金炳中（62경제）=〃
▲이병식（82경원）=〃
▲曺勝炫（82공경）=〃
▲吳圭東（65법학）=〃
▲이양희（81경원）=〃
▲김석윤（〃）=〃
▲金駿培（49전문）=〃
▲金圭勳（69경행）=〃
▲姜柄燦（78행석）=〃
▲韓德杓（72경영）=〃
▲兪俊植（80경원）=1만원
▲인중식（　）=5천원
▲李相容（49전문）=〃
▲奇浩元（49전문）=〃
▲황명준（81경원）=〃
▲심인학（81대원）=〃
▲孫亮讚（52경제）=〃
▲朴榮相（66경제）=〃
▲趙相元（60사학）=〃
▲權亨道（63농화）=〃
▲崔行植（50국문）=〃
▲姜錫文（72행정）=〃
▲李相稙（64법학）=〃
▲李正龍（52국문）=〃
▲李東科（64법학）=〃
▲李在喆（67경제）=〃
▲李奎浩（63정치）=〃
▲尹 鏡（64생물）=〃
▲郭正勳（63경제）=〃
▲金宇謙（71구공）=〃
▲金世基（77행석）=〃
▲金奉教（52정치）=〃
▲李健雄（65경제）=〃
▲具永學（68행원）=〃
▲金榮柱（58정치）=1만원
▲張敬千（64법학）=5천원
▲丁禮植（70행원）=〃
▲鄭宗教（66농화）=〃
▲韓堯鎭（61사학）=〃
▲지만희（　）=〃
▲許 宣（72경영）=〃
▲梁承寬（64법학）=〃
▲박용화（　）=〃
▲박종황（76승가）=〃
▲韓昌沃（62영문）=〃
▲朴甲淳（60국문）=〃
▲李圭振（57경제）=〃
▲涂丙壽（62경제）=〃
▲趙光錫（61경제）=〃
▲朴正淳（61불교）=〃
▲金哲龍（81전자）=1만원
▲전영섭（49전문）=5천원
▲楊玉男（80경행）=〃
▲申東坤（〃）=〃
▲金學喆（70경행）=〃
▲金鍾男（76경행）=〃
▲金容聖（61법학）=〃
▲안효철（66농화）=〃
▲金榮星（78정외）=〃
▲金殷守（78경제）=〃
▲金昌洙（65정외）=〃
▲洪永基（80경행）=〃
▲金明潤（68경영）=〃
▲李華植（72경행）=〃
▲李重錫（74경행）=〃
▲趙炳協（63상학）=〃
▲金在澤（49전문）=〃
▲韓昌浩（70경행）=〃
▲진정현（78경행）=〃
▲정화영（71경행）=〃
▲兪萬在（68상학）=〃
▲李桓燮（78경행）=〃
▲崔光植（71경행）=〃
▲조한용（77무역）=〃
▲林鎭浩（69행정）=〃
▲安文玉（55영문）=〃
▲宋 徹（72도공）=〃
▲金正浩（72국문）=〃
▲康賢燮（77연영）=〃
▲薛範洙（73토공）=〃
▲朴商珍（77행원）=〃
▲戎先語（60국문）=〃
▲柳丙午（69경행）=〃
▲吳仁均（79행원）=1만원
▲秋教煥（63생물）=5천원
▲李共植（70경행）=〃
▲秋炳福（65영문）=〃
▲金明植（60법학）=〃
▲李明洙（69영문）=〃
▲楊鶴周（66영문）=〃
▲咸燦鎬（79경영）=〃
▲崔孝洵（82회계）=〃
▲玄진壽（82도행）=〃
▲金榮彦（66상학）=〃
▲閔敬植（79수교）=〃
▲具滋昇（60수교）=〃
▲鄭上天（80수학）=〃
▲李德載（73수학）=〃
▲鄭信在（81국문）=〃
▲李圭南（62국문）=〃
▲林洛鉉（63국문）=〃
▲金富雄（67국문）=〃
▲具本洪（72농화）=〃
▲孫八洲（63국문）=〃
▲崔性安（57사학）=2만원
小計=2백51만5천원
累計=5백79만원

◇會報廣告협찬금

▲호텔설악파크（72호）=10만원
小計=10만원
累計=12만원

◇特別會費

▲尹昌鎬（55영문）=10만원

신입생 科別募集으로 轉換

內申성적 30%反映 내년入試

3志望 허용 인기學科 偏重현상없애

母校 83學年度「大學入試計劃案」이 지난 8월30일자로 수립 발표되었다. 새로 마련된 入試案의 주요골자는 前年度에 각 單科大學에 따라 系列別·學科別모집을 병행하던 것을 全學科 學科別 모집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교내신성적 30%반영, 제3지망까지 복수지원 허용등은 종전대로 시행한다는것 등이다.

모교가 明年부터 신입생을 學科단위로 뽑기로한 것은 계열내에서 2학년 進級때 학생들이 인기학과에 만 몰려 非인기학과는 지원자가 없는등 독자적인 학문발전에 장애요인이돼 처음부터 학생들을 전공학과별로 선발키로 한것이다.

현재 文敎部에서 검토중으로 9월중순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계획안에 의하면 성적합계는 人文社會의 경우 학력고사성적 70%(340점)、고교내신성적 30%(145·7점)、합계 4백85·7점으로 예체능계는 실기점수가 40~50%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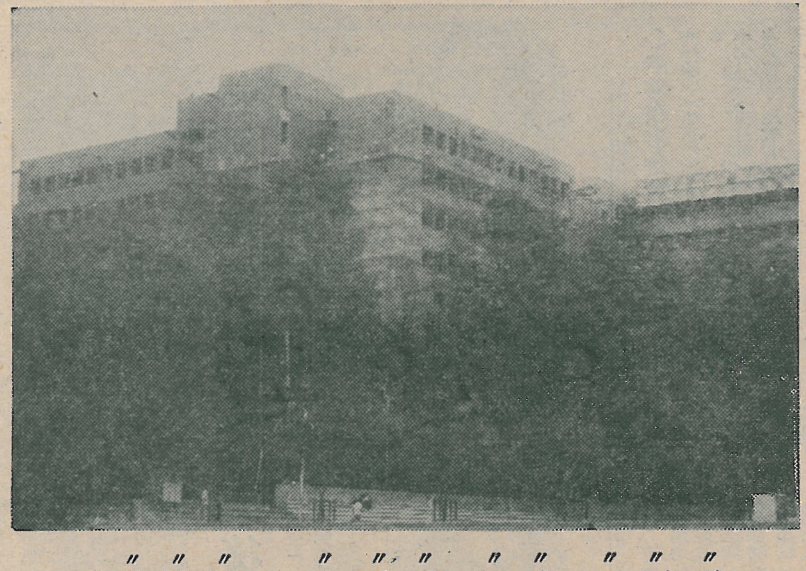
또한 사정원칙에 있어서는 사범대와 한의예과에대해 선발기준을 훨씬 강화하였으며 입시일정은 83년 1월5일~12일까지 원서교부및 접수、1월14일 일반전형、1월17일 예능실기공동관리전형을 실시하고 발표는 일반의경우 1월21일 예체능계는 1월26일 이내에 할것으로 알려졌다.

學事징계 9백58명

卒業定員制로 强化돼

母校당국은 학사징계규정에 의거 지난1학기 성적불량자 9백58명에 대해 대거 징계조치를 내렸다.

각 학년별 징계내용을보면 제적 14명(전원 2학년)을 포함, 1학년은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2백45명(경주대1백77명) 2학년은 총인원의 9%에 이르는 2백26명(경주대1백31명)、3학년은 89명(경주대 50명)、4학년 34명(경주대 6명)등으로 서울본교가 총5백94명、경주대가 3백64명에 이르고있으며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강화된 학칙에 따라 1、2학년들의 징계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講義棟」…웅장한 모습 드러내

모래 한톨, 자갈하나에「東國雄飛」의 탄탄한 의지를 담은 講義棟 건물이 이제 그 웅장한 자태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일찌기 장안에서 學問의 聖地로 수많은 필봉을 길러냈던 南山골 기슭― 장충공원의 아담한 풍치를 보듬고 그 脈을 이어받을 또하나 학문의 성화가 높이 들려지게 되었다.

지난 81년11월26일 첫삽질을 한이래 대지 6백80평, 地下1층 地上4층, 총건평5천2백여평으로 현재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및 외장공사등 최종마무리 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이 건물은 4개 대학원을 수용하게되며 규모 시설에 있어서최대 최고의 위용를 자랑하고있다.

영원한 진리탐구의 도장으로서, 동악을 지키는 학문의 보루로서, 강의동은 내일을겨냥하는 동국인의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될 것이다.

취업好調

후기卒業生 91%

모교 82學年度 後期卒業者들의 취업율이 91%로 최종 집계되었다.

學生生活課발표에 의하면 후기졸업생 1백8명중 98명이 취업완료했으며 단대별로는 경상대와 2部大가 1백%, 工大가 95%의 취업률을 보였다.

직종별 분포는 進學6名 유학3명, 군입대6명, 개인사업11명, 교직9명, 금융14명, 언론계 명, 공무원12명 기업체21명, 연구기관11명등이다.

慶州大學長 金仁鴻교수

圖書館長에 南都泳교수

金 學長

◇南 館長

모교당국은 지난8월3일 신임 慶州大學長에 金仁鴻(정외과)교수, 도서관장에 南都泳(사교과)교수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教授4명 採用

本校3·慶州大에 1명

모교 당국은 9월1일자로 서울 본교에 3명, 경주 분교에 1명등 4명의 교수를 신규로 임용했다.

대학교원입용절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얻어 黃총장의 임명절차를거친 신임교수들은 2학기부터 강의를 맡고 있으며 각 교수들의 전공과 약력은 다음과 같다.

◇黃昌奎(경상대 경영학과·교수) ▲서울生▲고려대 경영과(59) ▲고려대 대학원 석사(61) ▲성대 대학원 박사과정(78) ▲숙대 경영과 교수(65―82)

◇金甫煥(法政大警行科·조교수) ▲서울生 ▲연세대 행정학과(63) ▲미시간大 碩士(71)▲신시내티大 博士(80) ▲경찰大 조교수(81)

◇董徹(文理大 物理學科·전임강사) ▲서울生 ▲한양대 물리학과(63) ▲웰른大碩士(73) ▲워싱턴大 핵물리학 博士(82)

◇黃太均(경주대 경영학과·전임강사) ▲대구生 ▲영남大 경영학과(75) ▲서울大 대학원 碩士(77) ▲대일실전 전임강사

大學院에 40만원

후기博士 8명이

모교 대학원 82학년도후기박사학위 취득자 8명이 大學院生의 연구정진을위한 장학기금으로 40만원을 조성, 金鍾浩(文理大·統計科)교수에게 전달했다.

洪裕碩·張錫權씨

야구기금 各10만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과)에 재학중인 洪裕碩(서울신탁은행 여의도지점장)、張錫權(단국대교수)씨가 지난17일 모교대학원 鄭用吉학감을통해 野球部후원회에 각각10만원씩을 기탁했다.

이들은 모교 야구부의韓大化군이 지난14일밤 세계야구선수권대회 對日戰서 통쾌한 결승홈런을 날린데고무되어 야구부발전을 위해성금을 내놓은 것이다.

漢江汚染대책 특강

地域환경硏 E·W大 申錫漢박사 演士로

『漢江汚染對策은없을까』―날로 심각해져가는 漢江오염의 현황과 그 대책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초청강연회가 지난 9월9일 母校에서 열렸다.

創設 1주년을 맞은 모교「地域環境硏究所」(소장=吳洪晳)가 마련한 이날 강연은 자매교인 美 E·W大 申錫漢박사를 연사로「한강유역 환경오염과 대응방법」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申박사는 漢江을 살리기위한 가장시급한 문제는「水量의 부족과 고체폐기물·인분처리」등이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우리의 생활방식개선과 대규모 汚水처리장 건설·환경법의 강화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할것』이라고역설했다.

모교財團理事로 金天藏스님補選

◇金이사

학교법인 東國學院(이사장=朴淇宗)은 지난9월1일 이사회를 열고 尹月下이사 사임에 따른 후임이사에 金天藏(본명=龔泰·조계종中央종회부회장)스님을 選出했다.

김성배·金熙坤 두敎授 정년退任

지난 8월31일자로 정년을맞은 母校 金熙坤(農學科)교수와 김성배(國敎科)교수에 대한 정년퇴임식이 8월23일 學林館 소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교수·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퇴임식에서 黃壽永총장은 20여년을 母校에 봉직해온 두교수의 노고를 치하, 위로하는 한편 모교와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증정하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성배 박사 퇴임고별강연 가져

모교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몸바쳐온 한글학자 김성배(51국문)박사의 학덕을 기리는 정년퇴임 고별강연회가 지난 9월18일오후3시 학림관에서 열렸다.

「국어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평소 金박사를 따르던 後學·弟子등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끝난후 다향관에서 다과회를 열기도 했다.

신임 公報部長에 宋錫球교수

◇宋부장

모교 기획실 공보부장에宋錫球(哲學科)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동안 공석중이던 공보부장 임명은 입시등의 대외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활발한 공보활동이 기대되고있다.

신임 宋공보부장은 모교철학과를 62년에 졸업, 국민대교수겸 同신문사주간을 역임했으며 지난78년 모교에 부임했다.

大學人事

▲姜聲允(경주대기초과정부)교수=任경주대신문사지도교수

職員人事

▲김종옥=免기초과정부교학과장·任전산원교학과장▲박재헌=免전산원교학과장·任기초과정부교학과장▲최창선=免총무과주임·任비서실주임▲신일식=免비서실주임·任행대원교학주임▲류풍운=免행대원교학주임·任총무과주임▲이율래=免전산원교학주임·任과학관주임▲김종진=免과학관주임·任문리대교학주임▲김인식=免문리대교학주임·任전산원교학주임▲윤범모=免박물관연구원任비서실직원▲박광호=任학생생활과 〈이상8월2일자〉

″믿고찾는 同門의 집
서로 알고 서로돕자″

國立公園伽倻山海印寺
現代莊여관
대표 崔性安
(57년 史學科卒)

全同門 20% 할인
◉海印寺의 울창한 숲과
격조높은 분위기
◉신혼및 가족여행
◉효도·회갑관광
◉수학여행및 단체관광
◉아늑하고 쾌적한 객실
◈예약문의
경남합천군가야면치인리
TEL 해인사 114번